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제1534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

'리드코프' M&A 매물로 나왔다

서홍민 대표 지분 등 매각가 711억…한화 유력 인수후보
상호저축은행·우회상장 노리는 대부업체 가능성도 제기

코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대부업체 리드코프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후보로는 한화그룹 등이 떠오르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대부업체와 몸집을 키우길 원하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및 대부업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드코프의 최대주주인 ㈜디케이디앤아이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는 "리드코프 측에서 수개월 전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매각 의사를 타진해왔다"며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군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리드코프의 최대주주는 디케이디앤아이와 특수관계인으로, 디케이디앤아이는 347만318주(12.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케이마린과 ㈜디케이씨에스가 각각 226만4207주(8.46%), 169만2930주(6.33%)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디케이디앤아이와 디케이마린의 대표인 서홍민 씨가 318만4207주(11.94%)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39.71%에 달한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는 한화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의 경우 리드코프 최대주주와 가족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측의 요청에 따라 한화그룹이 이번 인수전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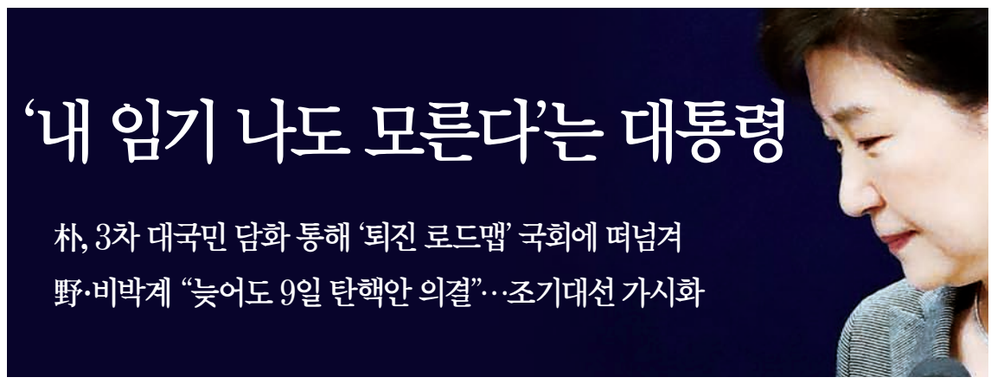
서홍민 대표는 서정화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차남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으로, 이번 매각에 서홍민 대표의 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디케이마린, 디케이디앤아이와 함께 H&Q(옛 리드코프) 보유 지분 37.48%를 485억 원에 인수했으며 주당 가격은 4696원이었다. 29일 종가 기준 리드코프 주당 가격이 6700원인 점을 미뤄볼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한 단순 매각가는 71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다른 대부업체의 인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수는 법인 세 납부 기준 총 937곳에 달한다. 리드코프와 같은 국내 토종 대부업체를 인수해 왜색을 지우려는 일본 대부업체와 코스닥 우회상장을 노리는 국내 대부업체 등도 리드코프 인수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리드코프는 올해 3분기 120억3800만 원의 영업이익과 67억85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으로만 본다면 매력적인 매물이지만, 업종 특성과 복잡한 지분구조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내 임기 나도 모른다'는 대통령

朴, 3차 대국민 담화 통해 '퇴진 로드맵' 국회에 떠넘겨
野·비박계 "늦어도 9일 탄핵안 의결"…조기대선 가시화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연대의 끈을 단단히 조여 맸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퇴진 로드맵을 국회에 맡기면서 한때 야3당과 비박의 탄핵대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늦어도 9일 탄핵안 가결'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2·4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위원회는 30일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행할 경우 탄핵안 가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시국위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탄핵 가결선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탄핵 의결 정족수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이다. 야당·무소속 172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시국위는 아울러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고 거듭 밝히면서 "8일 밤까지가 대통령 거취에 대한 여야의 협상 시한이고, 불발되면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회로 거취 문제에 관한 공을 넘긴 박 대통령에게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탄핵 문제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박계가 퇴진 시한을 못 박으면서 여야 협상에서도 4월을 하야 시점으로 한 6월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도 이날 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 탄핵 D-데이를 다음 달 9일로 연기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 담화로 여당 비박계 의원들이 이탈하는 등 탄핵 표결이 불확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흔들림 없는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비박계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홍수경 PD ▶9



김희석 CIO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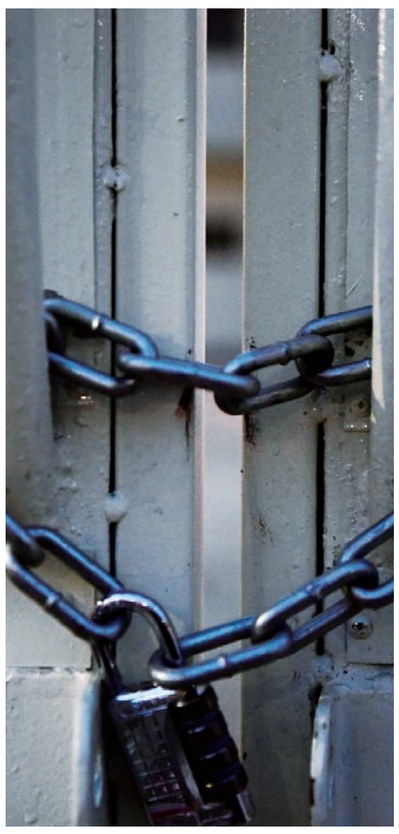
2016 '이투데이 광고대상'
이투데이 광고대상
▶20~21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추락하는 서민경제 ③ 제조업 실업 한파

굳게 닫힌 공장…1년새 일자리 11만개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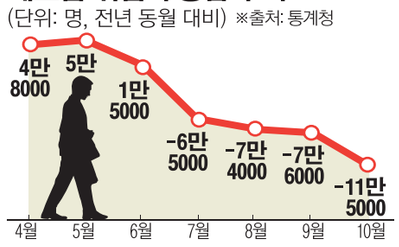
〈10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고용한파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줄었으며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일 인천 남동공업단지 내 공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수출부진·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2009년 9월이후 가장 큰폭 하락
만성적 한계기업 절반이상 제조업
내수위축 →경기불황 악순환 반복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명, 전년 동월 대비) ※출처: 통계청



조선사 직원 감소 추이(단위: 명)

	하청(생산직)	직영(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2015년 말	13만5785	3만5808	7786	2만3903
2016년 상반기	11만7830	3만5258	8482	2만1623

※출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경제에 상시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다. 조선·철강 등 대표적 제조업이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를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고용 안정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다. 파견, 용역, 사내하청까지 다양한 간접고용 시장에서는 올 4분기를 기점으로 '실업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맞물리면서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발(發) 고용 한파… 1년 만에 11만 개 일자리 실종= 제조업의 추락은 투자와 고용의 불확실성에 직결된다. 때문에 고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은 제조업의 추락을 의미한다. 지난달 수출 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1만 개 이상 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9월(11만8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줄어든 가운데 조선과 해운, 철강 등의 업종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채권단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을 위해 인력 감축을 압박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9월 기준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항만과 물류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부산의 실업률(4.0%) 증가폭은 1.4%포인트를 기록해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제조업발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위기→실업자 증가→내수 소비 위축→경기 불황'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안철우 기자 acw@

▶2면으로 계속



편향성 논란 휩싸인 미래부 유료방송 연구반

외부 교수 10명 중 5명이 SKT 관련

케이블 사업권역 폐지·동등결합 갈등

정부가 유료방송 발전을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킨 연구반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반에 소속된 교수 10명 중 5명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이다.

30일 본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유료방송 연구반 인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지난 8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KISDI 산하에 연구반을 만들었다. 연구반의 외부 전문가는 총 12명으로, 법률과 소비자 대표를 제외하고 1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김성철 고려대 교수 등 5명의 연구진이 SK텔레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와 미디어경영학회를 통해 CJ헬로비전과의 M&A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주장을 대변했다.

김 교수와 연구반은 전국을 78개로 나눈 사업권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지역사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초 출시되는 케이블 TV와 모바일 동등 결합 상품도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IPTV 상품의 재판매·위탁판매가 지속하는 한 동등 결합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연구반이 이를 묵인하면서 SK텔레콤 측의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퇴진에 조건 걸고, 방법은 나몰라라… '탄핵 분열' 승부수?

朴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이후

"하야 없다"… 국회에 거취 백지위임
겉으론 '임기단축' 속으론 '개헌카드'
퇴진 시기·구체적 방법론 언급 안해
탄핵 정족수 급한 야권은 셈법 복잡



탄핵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29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를 배경으로 대형 스크린에 대국민담화가 생중계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격 퇴진 선언을 했다. 다만 자신의 거취 문제는 국회에 백지위임했다. 친박 중진들이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을 마지막 퇴로로 선택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을 거부한 박 대통령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 및 절차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거론한 것을 개헌 요구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항은 수용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주길 희망했지만 야권에서 거부한 만큼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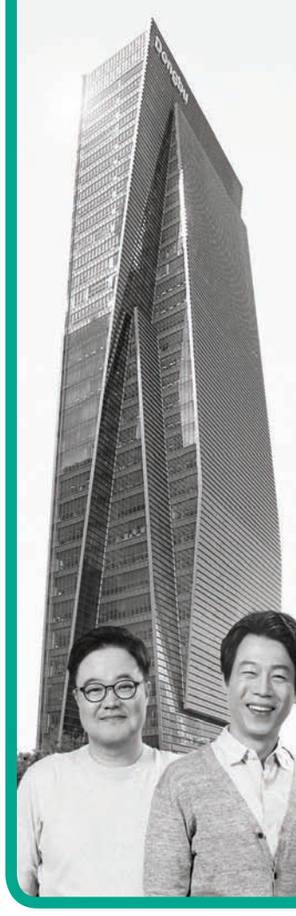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시한 거취 문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해 정권 이양의 로드맵을 짜주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조건부 하야'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야 정치권에 최순실 게이트발 국정 혼란을 끊을 책임의 바통을 넘겼다.

또 '임기 단축'을 언급, 개헌론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면서 정국은 더욱 복잡한 형국으로 접어들게 됐다. 비박계 협조를 얻어야만 탄핵 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야권으로서는 대통령의 승부수에 셈법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4차 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등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야가 국회 추천 총리와 거국내각 구성 등을 단시일 내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8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화재 동부증권
동부생명 동부캐피탈
동부자산운용 동부저축은행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동부금융네트워크


국내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 동부화재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회사 - 동부증권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량저축은행 - 동부저축은행


고객이 신뢰하는 우수한 성장률의 보험회사 - 동부생명


수익률과 안정성을 지닌 종합자산운용회사 - 동부자산운용


대한민국 여신금융의 리딩 컴퍼니 - 동부캐피탈

늦추려는 與 조기대선 서두르는 野

마땅한 후보 없는 與 '시간 끌기'
지지율 등에 업은 野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차기 대선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보다 명확해졌다. 당 분열로 어수선한 새누리당은 대선 시계를 최대한 늦춰 당을 수습, 대선 후보를 세운다는 계산이다. 반면 야권은 후보들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박 대통령을 탄핵한 뒤 신속히 대선을 치러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거취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당장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개 야당과 함께 내달 2일 또는 9일 탄핵에 무조건 동참하겠다던 비박계 강경파가 입장을 다소 선회했기 때문이다. 비상시국위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29일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달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때 탄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사실상의 하야'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탄핵 철회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30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데, 박 대통령을 탄핵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사정칼날이 새누리당을 향할 것이고 다음 총선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박계에서도 이런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친박계 내에선 여전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유력 대선 후보군을 갖추고 있는 야권의 입장은 다르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반 총장을 제외하고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안희정 등 1~7위 후보가 모두 야권 인사다. 대선이 조속히 치러진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반 총장이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대권기반을 다질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말한 것도 조급함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의중 기자 zerg@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누가

'조폭 수사' 조승식·'재벌 저격' 박영수 추천

野3당 합의에 靑 "임명 서두르겠다"


조승식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연수원 10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3당 합의로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보유한 두 분을 특검에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반 의혹에 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고르는 게 선택의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대구지검·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와 대전고검,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인천지검 검사장,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서울지검 강력부 시절인 1990년에는 거물 조폭 서방파 김태촌 씨를 구속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보호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고등검찰관), 대검 검찰연구관(21세기 기획단), 대검 강력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청와대 사정비서관,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을 땐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특별수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는 당사자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 실무 절차도 완료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최종 협의를 거쳐 추천된 특검 후보 2인의 명단을 서면으로 받으면 3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와대도 특검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면서 "가급적 빨리 임명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

추락하는 서민경제 - 제조업 한파

▶1면서 계속

◇만성적 한계기업 절반이 제조업… 조선·해운 대규모 실업 사태= '만성적 한계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제조업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기업 1만7841곳의 2005~2014년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이 3년 이상 10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 제조업체 비중이 52.2%에 달했다. 제조업체들이 최근 2년간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고용 한파의 강도와 직결된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조선업종의 경우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조선사들의 전체 고용 인원수는 18만31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20만3282명보다 2만89명 줄어든 것이다.

해운은 '실업 쇼크'를 부른 또 다른 업종이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2000명에 가까운 한진해운 육상직원과 선원 대부분이 올해 안에 해고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실직자 규모가 최소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해양수산개발원은 한진해운 종사자와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적의 시기·최소 자금으로 경영권 승계” 복잡한 셈법



지배구조 개편 서두르는 재계, 이유는…

이재용·정의선 등 오너 2~3세 전면에 나서면서 경영권 이양 리스크 극복
순환출자 규제 등 까다로워지는 법적 제재도 지배구조 개편 가속 부채질

삼성이 지주사 전환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돌입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오너 2~3세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그룹들은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의 승계 자금으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규제도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계자들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선 지분 이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금액의 승계자금이 필요하고 순환출제 규제 등 강화되는 법적 제약을 피해야 한다. 특히 7월부터 지주사의 자산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자사주를 이용한 그룹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도 부담이다. 이는 본래 행사할 수 없던 자사주 의결권이 지주회사 전환 뒤 부활돼 총수 일가 지분의 우호 의결권으로 행사되는 현상인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사실상 그룹 경영을 책임져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으로 본격적인 ‘이재용 체제’ 구축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지난 29일 공식화한 지주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장악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종착지로 꼽힌다. 이는 승계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낮은 지배력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가기 위해선 몇 가지 법적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전자사업자회사로 인적 분할, 삼성전자 지주사 설립시, 신설법인이 사업 자회사가 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5% 초과 지분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에 따른 합병 가능성도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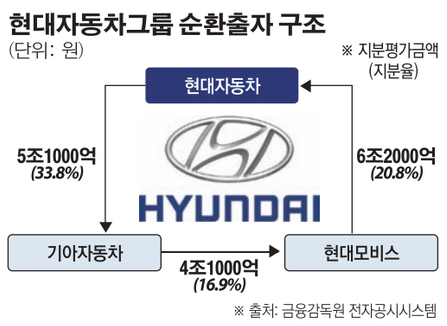
현대차그룹의 승계 속도는 아직까지는 더딘 편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이후 경영 일선에 나서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의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순환출자 구조에서 상당한 지분 변동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촉발됐다. 국내 주요 계열사에 대해 일본 계열사와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를 상장할 방침이다. 또 300여 개가 넘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롯데 상장은 일본 롯데그룹의 지분율을 낮추면서 한국 롯데를 독립 운영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계나 순환출자 이슈는 없지만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도 점쳐진다. SK그룹은 지난 10월 CEO 연례 세미나에서 중간지주회사 도입과 같은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공론화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 순탄할까

정의선 부회장 현대모비스 장악이 관건
글로비스로 기아차 모비스 지분 맞교환
순환출자 해소 지배력 강화 해결되지만
현대·기아차 지분 적어 경영권 약화 노출



삼성이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행보에 나서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라는 순환출자로 이뤄져 있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으려면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인 모비스를 지배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지분 매입에는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23.3%)과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16.9%)을 맞교환(스와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기아차와 모비스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해소되고 정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강화된다. 게다가 정 회장이 정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단순한 지분 맞교환이기 때문에 이사회만 통과하면 된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수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두 회사의 지분가치 차이가 2조7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비스는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주요 계열사”라며 “모비스와 지분 맞교환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글로비스 지분 가치(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의 모비스 인적분할(홀딩스와 사업회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홀딩스 3·사업회사 7로 모비스를 인적 분할한다면 기아차는 모비스 홀딩스 지분 16.9%(1조2000억 원)와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 16.9%(2조9000억 원)을 똑같이 보유하게 된다.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 부회장은 1조2000억 원만 있으면 모비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정 부회장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와 엔지니어링 지분을 유동화하면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 다만, 국회서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시간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순환출자 해소 작업을 해온 삼성과 달리, 현대는 지배구조 개편에 느긋한 편이었다”면서 “정 회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율이 2.2%밖에 되지 않는 만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처럼 벌처펀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삼성생명 주축 금융지주사 전환도 탄력

금융계열사 지분 늘리며 요건 충족 나서
비금융 계열사 지분 5% 아래로 줄여야
중간지주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필요

삼성전자가 29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삼성생명 아래로 금융계열사들이 재편되는 금융지주사 전환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과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을 전량 사들여 삼성카드 지분비율을 71.86%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613만 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지분율을 11.14%에서 19.16%로 높였고, 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 30%선을 넘겼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향후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16%)도 삼성생명으로 이전된다면,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생각만큼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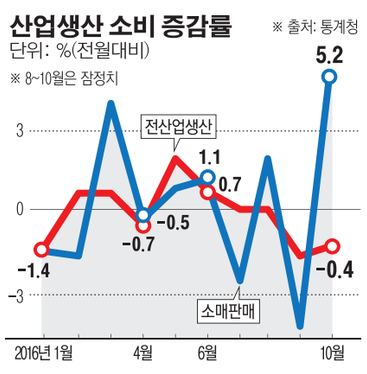
우선 현 제도 아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중간지주회사로 지배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중간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줄일지도 문제다. 금산분리 규제로 삼성생명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5% 아래로 줄여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 가지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분을 매각하려면 매입하는 측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과도 직결된다. 박규준 기자 abc84@



산업생산 두 달째 '뒷걸음질' 소매판매는 한 달 만에 '반등'

10월 산업활동동향…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 파업 겹쳐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광공업·서비스업의 동반 부진으로 2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철도파업 여파까지 겹치면서 운수업이 좋지 않았고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전 산업생산은 9월 0.8% 감소한 바 있다.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광공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1.7% 감소했다. 지난달은 0.3% 증가를 보인 바 있다.

10월 광공업은 자동차(4.6%), 반도체(3.8%)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1차금속(-4.0%)과 통신·방송장비(-18.1%) 등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70.3%를 나타냈다. 제조업재고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도소매(2.7%), 부동산·임대(0.7%) 등에서 늘었지만 금융·보험(-1.2%), 운수(-2.0%) 등이 줄며 마이너스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6%) 투자가 줄어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인 건설기성은 건축(2.5%)에서 증가했지만 토목(-8.1%) 실적이 줄어 전월에 비해 0.8%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해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했지만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구인구직비율 등이 증가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5.2% 증가로 반등했다. 1995년 12월 6.9%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9월 소매판매는 -4.5%로 2011년 2월 -5.5%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 경우 승용차 등 내구재(10.8%),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0%), 의복 등 준내구재(3.2%) 판매가 두루 늘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소매판매는 9월 크게 감소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9월 말~10월 초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최순실 국조특위' 문체·법무 첫 기관보고

5개 정부부처 시작으로 본격 돌입… 내달 16일까지 진행
문체, K스포츠·미르재단… 법무, 수사관련 질문 쏟아져
우병우 장모 등 증인 추가… 내달 5일 대통령 비서실 예정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30일 5개 정부부처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국조특위는 각 부처로부터 기관보고와 현안보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날 1차 기관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부처 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처별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예고해 온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문체부는 차은택 감독·김종 전 차관과 관련돼 있어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해 핵심 부처로 꼽힌다. K스포츠·미르재단의 설립 과정과 재원조달 문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박태환·김연아 등 체육계 압력 행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질문도 많이 쏟아졌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을 앞둔 상황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의혹과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국조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김 회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이자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팀장·삼성물산 김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단 최광 전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관리본부장, 전 국가대표 승마팀 박원오 감독,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등에 대한 2차 기관보고가 열린다. 또 6일부터는 4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개최된다. 1차 청문회에는 8개 대기업 총수와 전경련 회장·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외에 추가 채택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2명과 삼성 관계자 2명, 박 감독 등 총 15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김 회장과 조 비서관은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장에 설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공제 재정비를"

한경연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
"과세자 비율 주요국보다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세 인상보다 각종 공제 수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의장이 소득세 인상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시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뒤 나온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한 뒤 "고소득층에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와 면세점 수준을 낮춰서 과세자 비율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4년에 근로소득세의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를 특별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방식을 전환하면서 과세자 비율이 급전직하해 외국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와 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포함)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누진도는 하락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균 기자 yangck@

"신재생에너지 육성" 20년 수익 보장

산업부, 태양광·풍력 전력 구매시 고정가격 장기계약 의무화
포스코에너지 등 혜택 전망…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도 강화

발전공기업들이 포스코에너지 등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SMP와 REC 판매수익으로 이원화돼 있다. SMP는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얻는 수익이다. REC는 인증서를 각 발전사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발전공기업 18개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SMP와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년짜리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수익을 꾸준히 보장해주고 외부 투자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 가구에서 2020년까지 70만 가구로,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까지 3400개교로 신재생 보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대비 4.5%(2015년)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025년에는 1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유일호 "투자·고용 확대… 경기회복 총력"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내년 경제정책방향 제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투자·고용 확대와 소득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서 경제정책이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3분기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여파로 생산·고용·소득이 부진한 가운데, 미 대선 이후 대외변동성 확대와 최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 경제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에 강화된 경제팀의 컨트롤 타워 체계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신속한 조율과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모든 지자체에서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현 청년 인턴 수료자(1만 명)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서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자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축산패커를 육성해서 현 4~6단계인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 추진한다.

곽도흔 기자 sogood@

산업부 '수출상담회' 1700만 달러 수출 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수출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6 붐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를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해외바이어 350개사가 방한하여 국내기업 940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해 73건, 1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162건, 1억60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주년을 맞아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콘텐츠, 프랜차이즈 등 대중국 수출유망품목 분야 유력바이어를 중점적으로 유치해 1대 1 수출상담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항공 부품 등 소재 부품 분야 바이어와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도 진행했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내 상용차 5위 업체인 진베이(Jinbei) 자동차의 샹샤오시 총감은 "새로운 기술을 찾기 위해 방한했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파트너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엘리 기자 ellee@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5%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27곳서 총 3212억
1057억↓… 기준 높아지며 업체 감소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들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의 기준 금액인 4269억 원보다 1057억 원(24.8%)이 감소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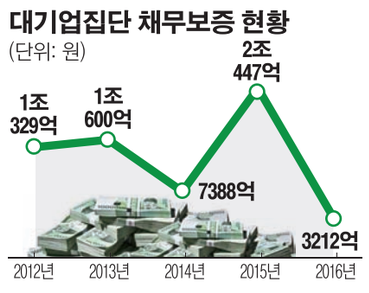
공정위는 "지난 1년간 1867억 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 원 등 810억 원이 늘어나 총 1057억 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일 61개(자산 5조 원 이상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채무보증액(2조447억 원)과 비교하면, 1조7235억 원(84.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현대그룹이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또 산업 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 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두산, 효성 등 4개 그룹에서 총 3105억 원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감소 추세"라며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수임 보고 누락’ 우병우, 징계 받을까 검찰은 계좌추적…‘탈세의혹’ 수사중

서울변회 “2013년 5월부터 1년간 누락”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 檢수사 영향 촉각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우병우(49·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 신고를 한 뒤 이듬해 5월 공직 취임을 이유로 휴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두 차례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과 함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사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 규정으로 과세 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檢조사 “이영복과 돈거래, 특혜 없었다” 부인

해운대 엘시티(LCT)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시간여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오전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현 전 수석을 다시 출석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종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 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좌영길 기자 jyg97@



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서문시장 2005년 이어 또 큰 불, 안전불감증?

500개 이상 점포 전소…인명 피해는 없어

30일 새벽 2시 8분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0여 개 이상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으나, 건물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돼 이날 오전 8시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차 97대와 소방인력 75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4지구는 의류나 커튼, 침구류 등을 파는 점포가 밀집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뤄진 4지구 건물은 이번 화재로 1층이 전소되고, 2층과 3층으로 불이 번졌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이 지휘하는 비상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상황실에 나와 재난안전실 직원을 비상 소집하는 등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오전 2시 조금 넘어서 4지구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올라왔으며 폭발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문시장은 1·2·4·5지구와 동산상가, 건해물상가 등 6개 지구로 구성돼 4000여 개의 점포가 있다.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4지구는 839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12월 29일에도 큰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허위 표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영유아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도록 했고, 부모들을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옥시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 신 전 대표가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변경 사실을 몰라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며 “원료 변경 계획부터 출시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지하철 탄산음료 퇴출사업 ‘흐지부지’

서울시, 공공기관 자판기서 판매제한 지하철 역내 ‘0’건 시행 1년만에 실패 정부 당류저감계획도 ‘식물’계획 전락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하철 탄산음료 퇴출 사업이 1년 만에 흐지부지 사라졌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청과 보건소 등 공공기관 240곳에 배치된 자판기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 당(糖) 저감을 추진하겠다던 시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종결됐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고려해 공공기관 내 자판기 549대(위탁 229대 포함)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었으나, 올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전체 자판기의 42.5%에서만 탄산음료 판매 제한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후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자 탄산음료 퇴출 정책을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 지하철 역내 자판기 중 탄산음료가 퇴출된 자판기는 한 대도 없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는 대표적인 ‘졸속 정책’ 사례가 된 가운데, 서울시가 대안으로 마련한 방안 역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탄산음료 퇴출사업을 중단한 이후 정부가 시행 중인 ‘당류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과도한 당 섭취 습관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류저감종합계획 역시 이미 ‘식물계획’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건강을 기치로 내걸고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 10%를 줄이기 위한 당류저감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내용이 수차례 변경되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 당 섭취 경로 분석을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당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 역시 아직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인증조작’ 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판매정지

닛산·BMW·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조작과 오류가 확인돼 판매가 중단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 10개 차종 중 닛산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BMW ‘X5M’, 포르쉐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포르쉐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쯤 행정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 조치와 판매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미 판매된 4349대에 대해서는 64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산업은행 M&A 매물 휩쓰는 유암코

중소·벤처 패키지 우선협상자 선정
동부건설 인수전에도 조기 출사표
시중은행보다 가격협상 쉽고
구조조정 업무 강화 이해관계 얽혀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KDB산업은행 매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30일 중소·벤처기업(비금융출자회사) 패키지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유암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부가액인 약 700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암코는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 뒤 산은이 내놓은 매물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구조조정 1호 기업으로 오리엔탈정공 채권을 인수했고, 최근 경영권 지분 인수도 참여하고 있다. 산은 등 채권단이 최대주주였던 동부건설과 현대시멘트 인수전의 경우 딜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출사표를 던졌다.

이 같은 배경으로 유암코와 산은의 이해관계가 거론된다.

산은은 지난 6월 '국책은행 경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출자회사 총 132개 기업을 3년 내 전부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 대상 기업은 3년 동안 지분 15% 이상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98곳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5% 이상 갖게 된 34곳이다. 이번 패키지 매각은 이 일환이다.

인수·합병(M&A) 관계자는 "패키지 매각은 1~2년 내 엑시트가 가능한 알짜 벤처기업에 매물 가치가 떨어지는 출자회사들을 묶어서 팔겠다는 의미"라며 "패키지 매각 발표 후 시장에서 열기가 식었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산은과의 채권 가격 협상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유암코는 시중은행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 중 신규자금 투입이 어려운 곳의 채권을 할인해 사와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중은행은 내규, 감사 등으로 장부가 이하 매각이 어렵다. 반면 산은은 출자회사 매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가격 매각'도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황윤주 기자 hyj@

NH농협은행, 환전 최고 70% 우대



NH농협은행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최고 70% 환율 우대와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NH농협은행 겨울 환전·해외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에 환전하는 고객은 통화별로 40~60%의 환율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최고 7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해외 송금 고객은 통화 구분 없이 기본 50% 우대 환율을 적용받으며, 'NH해봄' 고객은 60%의 우대환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건당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및 송금 실적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하나운용, 해외 대체투자 확대
KKR 발행 채권 1억달러 투자

연기금 6곳 참여… 국내 운용사 첫 투자
워버그핀커스 이어 3대 PE와 교류 눈길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자산운용이 세계적인 사모펀드(PEE)들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잇단 투자를 진행해 눈길을 모은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하나자산운용은 이날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가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다.

세계 3대 사모펀드(PEF)로 꼽히는 KKR가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은 총 3억9000만 달러(한화 4560억 원 규모)로, 이미 미국 현지에 있는 매스뮤추얼 운용사가 1억5000만 달러(약1755억 원 규모), 국내에선 롯데손해보험이 약 1억 달러(1170억 원 규모)의 투자자로 나섰다. 여기에 하나자산운용도 국내 연기금 6곳과 손 잡고 총 1억1000만 달러(약 129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다.

국내 운용사가 KKR가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간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입지를 다진 하나운용 입장에서도 해외 대체투자 부문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투자건은 KKR가 운용 중인 3억9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현물 자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연평균 예상 수익률은 3~7.5%다.

특히 운용 단계에서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KKR 및 재보험사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지녀 투자자들은 원금과 최소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정성을 높였다. 실제 A급 신용등급 재보험사인 AWAC(Allied World Assurance Company,Ltd)와 HCC Re(HCC Reinsurance Company,Ltd.)가 손실을 보전해 준 점이 눈에 띈다.

앞서 하나운용은 최근 세계 3위 PE인 워버그핀커스와 손 잡고 3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최초 물류 플랫폼 펀드에 투자한 전력이 있다. 때문에 이번 KKR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PE들과 잇달아 성공적인 딜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는 평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하나운용이 최근 글로벌 PE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며 "이외에도 현재 유럽 PE계의 강자인 CVC와도 투자 건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최재혁 기자 kakim@

우리은행 '위비톡' 가입 300만 돌파 눈앞

메신저에 송금·오픈마켓 등 서비스 더해
내달부터 일본·러시아어 등 5개국어 지원

우리은행의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 가입자 수가 연내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30일 현재 위비톡 가입자 수가 265만 명으로 매일 1만5000~2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위비톡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입자 인프라를 300만 명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위비톡을 출시한 후 다양한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해왔다.

위비톡의 강점은 메신저 기능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이다. 맛집, 부동산 정보, 여행, 웹툰, 건강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위비톡에 접목했다.

아울러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핀(PIN) 번호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와 금융권 최초로 우리카드가 선보인 온라인 오픈마켓인 '위비장터'도 위비톡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향후 인공지능(AI) '챗봇(채팅과 로봇)'을 개발하면 위비톡에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비톡 가입자 확대에는 다국어 서비스도 한몫했다. 위비톡은 영어, 중국어에 이어 지난 2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제공해 국내에 있는 외국 근로자나 현지에서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들이 위비톡을 이용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본, 포루투갈어(브라질),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5개 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위비뱅크' 진출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브라질, 홍콩 등 8개국으로 확대됐다.

우리은행은 위비뱅크의 브랜드 네이밍 전략을 통해 진출 국가별로 다른 이름을 사용 중이다. 위비뱅크는 중국에서 재산을 증식해 준다는 의미의 '요우리바오(友利寶)'라 불린다. 인도네시아는 '르바(Lebah)', 베트남 '옹먿(Ong mat)', 브라질은 아벨랴(Abelha) 등으로 성실, 신속을 의미하는 꿀벌의 현지어를 위비 브랜드와 함께 표기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홀로 남은 기업은행… 지주사 전환 재검토?

우리은행 내년 금융지주사 전환 선언에
6대 대형은행 중 유일한 은행 단일조직
2009년 검토 후 '시너지 문제'로 철회

우리은행의 내년 금융지주회사 전환 선언으로,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대형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만이 유일한 은행 조직으로 남게 됐다. 과거 지주 전환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 기업은행이 특수은행 중 농협에 이어 두 번째 금융지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한창이던 2009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이 KDB금융그룹 및 KDB금융지주를 설립하던 시기에 기업은행도 금융지주로 지배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검토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윤용로 전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지주화에 대한 내부 검토 뒤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금융지주 방침을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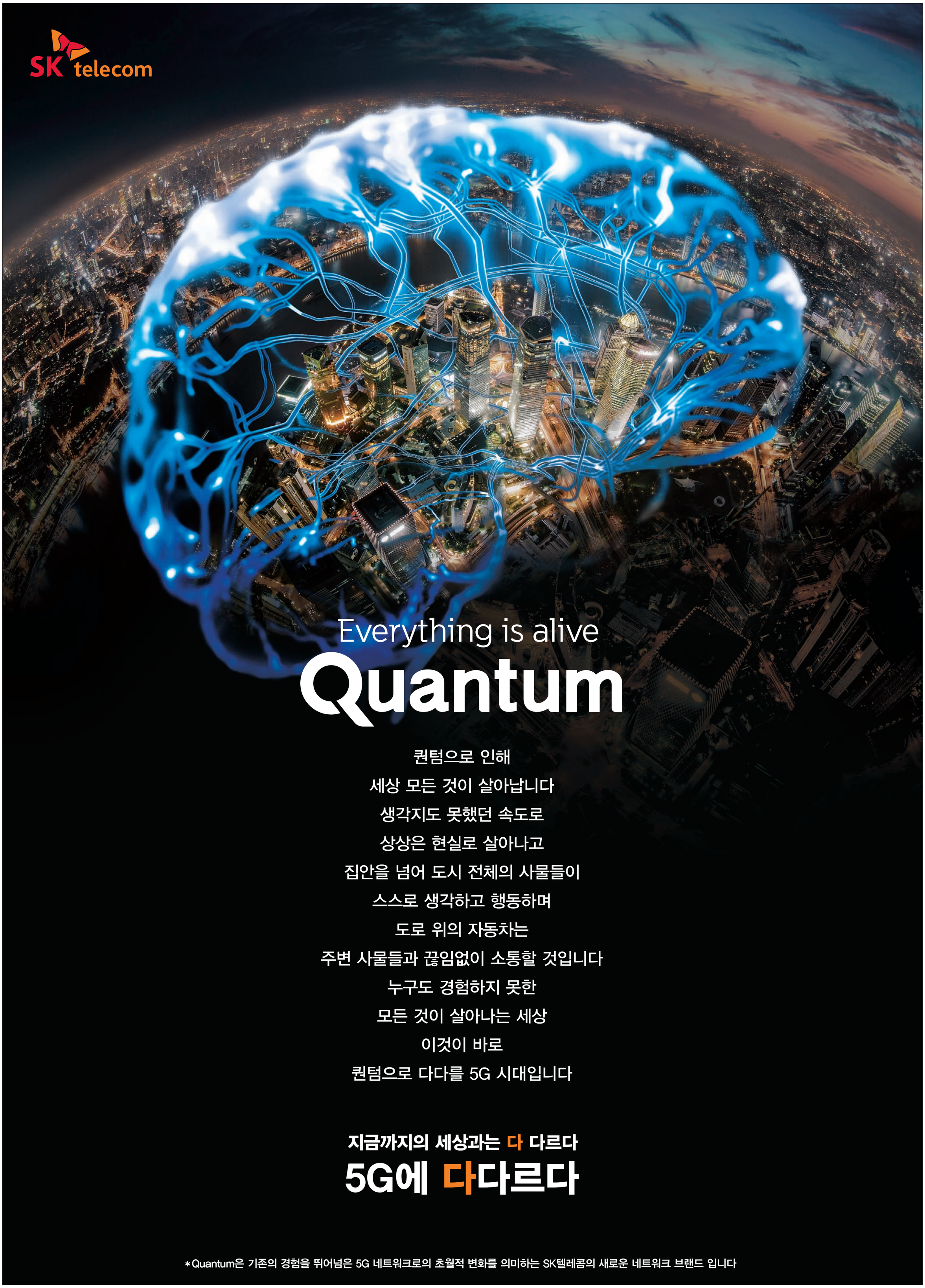
현재 기업은행은 IBK캐피탈·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자산운용·IBK저축은행·IBK시스템·IBK신용정보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린 구조로,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저축은행' 등 그룹 포트폴리오만 놓고 봤을 때 우리은행보다 낫다는 평가다.

기업은행이 지주화를 접은 가장 큰 이유는 금융지주 내에 은행을 포함한 8개 계열사를 둘 경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가 낮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업은행의 영업점포 수는 630개로 6대 은행 중 영업점이 가장 적다. 1위는 농협은행으로 1181곳에 영업망을 갖춰 기업은행의 거의 2배다. 이어 국민은행(1131개), 우리은행(957개), 하나은행(956개), 신한은행(893개)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자회사의 시장 경쟁력을 우선 확보해 자산 규모를 더 키워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박일경 기자 ikpark@


SK telecom
Everything is alive
Quantum
퀀텀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로
상상은 현실로 살아나고
집안을 넘어 도시 전체의 사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도로 위의 자동차는
주변 사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세상
이것이 바로
퀀텀으로 다다를 5G 시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다 다르다
5G에 다다르다
*Quantum은 기존의 경험을 뛰어넘은 5G 네트워크로의 초월적 변화를 의미하는 SK텔레콤의 새로운 네트워크 브랜드 입니다

삼성전자 "4분기 투자집행 차질 없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악재에 투자 지연 우려됐지만
올 목표치까지 12조3000억원
평택 반도체 공장 등 설비 투자
V낸드·OLED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12조 원 규모의 4분기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며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통보받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활동은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예정된 4분기 설비 투자액 대부분은 평택 반도체공장에 투입된다"면서 "현재 계획대로 설비 반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 역시 "올해 꾸준히 이어온 A3공장 라인 증설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의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집중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부지 면적은 약 축구장 400개 넓이(289만㎡, 87.5만평)에 달하며 투자 금액은 총 15조6000억 원이다. 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공장으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주로 생산한다. 삼성전자는 내년 연내 기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5~6월경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플렉시블 OLED 전용 라인인 A3공장 추가 투자를 집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시설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4조7000억 원을 3분기까지 집행했다. 따라서 나머지 12조3000억 원을 4분기에 모두 집행해야만, 올해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투자 계획의 핵심은 V낸드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V낸드 반도체와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집행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삼성이 연루되면서 그룹 인사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투자 집행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29일 콘퍼런스콜에서도 중장기 비전과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수차례 언급했다. 권오현 부회장은 "전략적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전장 등 차세대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선사업에 정상화에 주력하고 견조한 실적성장을 추진, V낸드, OLED 패널 판매 확대 등 부품사업 실적 강화 등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LG 정기인사 임박… 구본준 부회장 '사업-경영 총괄' 무게

신성장사업 추진뿐 아니라 계열사 사업 전반 경영관리까지 맡을듯
이번주 내 이사회 열고 인사 단행… 구광모 상무, 전무 승진도 유력

LG그룹의 정기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총수 일가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본준〈사진〉 LG그룹 부회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 상무의 전무 승진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본격적인 '포스트 구본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내 LG전자,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 사안은 오너가의 역할이다. 구 부회장과 구 상무의 담당 역할 및 승진 여부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부회장은 이번 인사로 현재 맡고 있는 신성장사업추진단 단장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룹 내부를 전반적으로 챙기면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부품(VC), 에너지솔루션 등 LG의 미래 먹거리 분야를 직접 총괄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내년부터는 신성장사업추진뿐 아니라 계열사 사업 전반의 경영관리까지 도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LG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구 부회장은) 이미 지난 3월 LG전자 이사회 의장, LG화학 등기임원을 맡으면서 계열사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다"면서 "구 회장이 대외적인 역할을, 구 부회장은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맡을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후계자인 구 상무 역시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구 상무는 지난 2015년 정기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으며, 현재 구 부회장 산하 시너지팀에 속해 있다. 구 상무는 LG전자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 HA(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등을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다만 LG가 경영권 이양에 있어서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고 있어 구 부회장이 경영권을 모두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구 부회장의 역할이 커지는 까닭은 '스마트폰'에서의 미래 예측 실패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제때 확보해 위기에 빠진 LG를 구하고, 구 상무가 경영 수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잡기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LG전자의 조성진 H&A사업본부장, 조준호 MC사업본부장, 정도현 최고재무책임자(CFO) 3인 대표 체제는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허용수·허세홍 대표이사 선임… GS家 3·4세 경영 전면에

40대 오너 경영진 전진배치

GS 오너 일가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과 4세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이 29일 단행된 GS그룹 인사에서 GS EPS 대표이사와 GS글로벌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경영 전면에 나섰다.

GS그룹 내 오너 3세 중 막내인 허용수 부사장과 4세 맏형인 허세홍 부사장은 2009년 말에 전무, 2012년 말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GS그룹 측은 "이번에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된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와 허세홍 GS글로벌 대표이사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40대의 차세대 경영자"라며 "앞으로 GS그룹의 미래성장을 위한 더 큰 역할을 맡기 위해 경영일선에 전진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용수 신임대표는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GS그룹 지분(4.47%)을 허창수 회장(4.75%)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차기 GS그룹 회장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허 대표는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경영학,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크레딧스위스, ㈜승산 등을 거쳐 2007년 GS홀딩스 사업지원담당(상무)로 입사했다. 이어 2010년 ㈜GS 사업지원팀장(전무), 2013년 GS에너지 종합기획실장(부사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증권·물류·M&A·자원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거친 만큼,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세홍 신임대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아들로 오너가 4세 중 맏형이다. 현재 GS 지분 1.43%를 보유하고 있다.



허용수 GS EPS 대표이사 부사장



허세홍 GS글로벌 대표이사 부사장

1969년생인 허세홍 부사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와 IBM, 세브론 등에서 경험을 쌓고 2007년 GS칼텍스에 입사한 뒤, 싱가포르법인장과 생산기획공장장, 석유화학·윤활유사업 본부장을 맡았다.

문선영 기자 moon@

부채 많은 롱비치터미널… SM그룹, 현대상선과 동반 인수 나서나

인수금 4000억 자체조달 어려워
현대상선과 함께 한진 지분 54%
절반씩 나눠갖는 방안 검토 중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인수에 현대상선이 비공개로 '가격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SM그룹(대한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현대상선과 함께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현대상선과 절반씩 나눠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M그룹은 지난 14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 및 물류 IT시스템, 인적자원 등의 자산을 370억 원에 양수했다.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운영 중인 한진해운 자회사 TTI(Terminals Investment Ltd) 지분 54%에 대해선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일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전날 법원은 롱비치터미널 매각 주관사인 미국 제프리사를 통해 비공개 가격제안서를 받았다. 법원은 롱비치터미널 2대주주인 스위스 MSC와 대주단과 협의해 기준 가격을 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이번 비공개입찰에 참여했다.

법원은 적정 가격을 정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SM그룹에 제시할 예정이다. SM그룹이 이를 받아들이면 롱비치터미널 단독 인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이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6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0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주단은 이를 인수자가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터미널 운영자금 1000억 원을 더하면 인수자금으로 약 4000억 원이 소요된다. 3분기 말 기준 롱비치터미널의 순부채는 6240억 원,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360억 원이다. 현대상선도 지난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SM그룹은 해운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나서서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하면 지분을 현대상선과 나눠 갖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성사되려면 현대상선의 동의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미정 기자 mjk@

정유업계 "검은 대륙으로"

중국과의 경쟁 아시아 수출 감소
아프리카는 작년보다 462% 급증
영국도 790%… 판로 다각화 노력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확대로 아시아 지역 수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수출처 다각화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석유제품 수출량은 4억693만 배럴로, 지난해 4억7705만 배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수출량은 중국이 석유제품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0년부터 약 6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아프리카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아프리카는 지난해 283만 배럴에서 올해 10월 1595만 배럴로 462.9% 증가했다. 특히 앙골라는 지난해 126만 배럴에서 올해 1140만 배럴을 수입, 802.5%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럽도 수출이 지난해 2480만 배럴에서 올해 10월 2528만 배럴로 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50만 배럴에 머물렀던 영국은 올해 10월까지 448만 배럴을 수출, 790%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최대 수출처인 아시아는 지난해 3억9966만 배럴에서 올해 10월 3억2429만 배럴로 수출량이 18.8% 감소했으며, 중동과 아메리카도 전년 대비 각각 41.8%, 13.2% 감소했다.

국가별 석유제품 수출량
(단위: 천 Bbl) ※출처: 페트로넷

	2015년	2016년 10월까지	증감률(%)
아시아	399662	324290	-18.85
유럽	24803	25288	1.95
중동	6168	3589	-41.81
아메리카	43587	37817	-13.20
아프리카	2834	15953	462.90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아시아 시장은 중국이 자체 시설을 늘리고 다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중동은 자국 내 수요가 높아 시설을 증설하다 보니 시장이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앙골라 시장을 뚫어 수출량이 크게 늘었고, 유럽 쪽은 영국이 크게 늘어났다"며 "꾸준히 거래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스폿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통해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 수출처 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대표 업체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다. SK에너지는 아프리카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S칼텍스도 싱가포르법인을 통해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 등에 석유화학제품 트레이딩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IT 공룡' 격전장 된 유료 콘텐츠 시장

애플 뮤직·넷플릭스 진출 이어
'유튜브 레드' 다음달 6일 출시
월 1만1000원에 광고없이 시청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레드'가 다음 달 한국에 상륙한다. 올해 넷플릭스와 애플뮤직에 이은 후속 진출로 글로벌 IT 공룡들이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자 국내 유료방송 업체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30일 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튜브 레드를 공식 출시한다. 유튜브 레드는 기존 유튜브 서비스에 구독 기반의 유료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가입자가 가입 시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와 구독 기반의 유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한 달에 9.99달러(1만1000원)를 내야 한다. 또 일반 버전과 달리 음악 스트리밍 앱처럼 사용 가능하고 재생목록을 저장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앞서 애플과 넷플릭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콘텐츠 시장의 경쟁을 예고했다.

애플은 지난 8월 월정액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애플뮤직은 멜론, 네이버 뮤직 등 국내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을 고려해 월 사용료를 미국 현지보다 2달러 저렴하게 내놓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세웠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도 올 1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헤이팅스 넷플릭스 사장이 직접 방한해 국내 시장 공략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IT 업체들이 국내 진출에 속도를 높이자,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자들이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네이버, 프랑스 음향기술 벤처 전략투자

유럽시장 진출 본격 행보

네이버는 코렐리아 캐피탈과 함께 프랑스 하이엔드 음향 기술 스타트업 '드비알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는 9월 코렐리아 캐피탈의 'K-펀드 1' 출자 발표에 이어 이번 드비알레 투자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네이버가 유럽에서 첫 번째로 투자하는 스타트업 드비알레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스피커 분야 전문 기술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신개념 증폭기술 '아날로그·디지털 하이브리드' 등으로 기존 대형 앰프가 아닌 소형기기로 하이엔드급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샤프를 인수한 폭스콘, 르노-닛산 등의 기업들과도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는 등 홈오디오 시장뿐만 아니라 TV, 자동차 등의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드비알레의 이번 투자 유치에 네이버와 코렐리아 캐피탈은 물론 폭스콘, 르노-닛산 등의 글로벌 기업, 안드로이드 OS의 창시자 앤디 루빈, 뮤지션 제이지 등의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해 총 1억 유로를 투자했다.

네이버는 드비알레에 대한 자금 투자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2016년 11월 24일자로 입주자 모집공고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아 래

변경 전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청약 2순위)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당첨자로 관리됨.

변경 후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청약 2순위)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함.

- 정정내용 :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내용 수정

2016.11.30

• 시행 : 봉천12-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대림산업(주)

유통명장을 찾아서

상품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 홈쇼핑도 사람 냄새 나게 만들죠

홍수경 CJ오쇼핑 PD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단일 상품의 최대 판매액을 올리는 유통 채널은 무엇일까. 매력적인 이 채널은 바로 TV홈쇼핑이다. 1995년 국내 도입 이래 약 21년이 흐른 현재, 12조 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한 TV홈쇼핑. 이 같은 역사와 함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온 산증인이 있다.

국내 최초 홈쇼핑 중 하나이자, 국내 굴지의 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의 대표 간판 프로그램인 '유난희쇼', '라메종'을 연출하는 홍수경 PD다.

"(홈쇼핑 PD는) 마케터이자, 콘텐츠 커머스 프로바이더(Contents Commerce Provider)여야 한다"는 홍 PD를 25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CJ오쇼핑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MD의 제품 소싱에서부터 쇼호스트의 문구까지, TV화면을 넘어 이제는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제품 하나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모든 여정을 총괄하는 홈쇼핑 PD의 역할은 지대하다. 소비자의 빠른 피드백, 구매 실적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채널 특성상 PD의 순발력이 중요하다. 홍 PD는 "분당 효율도 챙기고, 실적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그 재미가 없으면 홈쇼핑 PD를 못 한다"고 다부지게 이야기했다.

1세대 홈쇼핑 PD인 그는 열정적인 어조만큼이나 기록적인 족적을 남겨왔다. 특히 콘텐츠의 힘을 믿는 CJ의 DNA가 그녀의 연출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녹아든 듯 차별화된 기획과 시도로 넘쳐났다. 77사이즈의 일반인을 내세운 '대국민 모델 이벤트'(2015)를 비롯해 판매 없이 오로지 콘텐츠 자체로 밀고 나간 '프리론칭 패션쇼'(2013) 등을 기획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패션쇼를 했지요. 그 시간에 포기한 판매액을 환산하면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져 더 큰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홍수경 PD는 크리에이티브한 시도를 믿어준 CJ의 정신이 이 같은 콘텐츠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홍 PD는 2012년 당시 인기 스타들의 웨딩드레스로 화제가 된 브랜드인 베라왕을 소개하면서 유명세에 기대기보다 의외의 선택을 하기도 했다. "베라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30분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을 선보이기도 전에 매진 사례를 이뤘지요."

그가 최고의 홈쇼핑 PD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물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휴대폰을 팔 때 주로 기능, 혜택을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전화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상품이 주인공이 아니라, 상품을 매개로 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처럼 늘 사람 냄새 나는 연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홍수경 CJ오쇼핑 PD가 스튜디오 부조정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세대 홈쇼핑 PD인 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는 연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CJ오쇼핑 간판 프로 '유난희쇼''라메종' 연출
'대국민 모델 이벤트' '프리론칭 패션쇼' 등
차별화된 기획과 연출로 홈쇼핑 업계 선도
"글로벌 시장 급변, 한국적 콘텐츠로 승부"

콘텐츠부터 판매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홈쇼핑 PD로서 새 지평을 연 홍수경 PD는 급변하는 홈쇼핑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홈쇼핑 채널 수가 T커머스까지 17개입니다. 전에는 홈쇼핑 온라인 비즈니스조차 없었지요. 이제는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홈쇼핑 시장 전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끌려가기보다 한국적인 콘텐츠로서 선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1972년생인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중간을 잇는 세대입니다. 양쪽을 다 아는 게 장점이지요."

그녀에게 꿈이 하나 있다. "나영석, 신원호 PD가 박보검, 정우 등 스타들을 배출했듯, 저 역시 CJ오쇼핑을 통해 원석 같은 상품을 발굴해 빛나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겨울 불청객' 정전기, 생활 보습으로 잡자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크림'
얼굴에도 OK 저자극 수분 보습제

유닉스전자 '이온 헤어브러시'
이온 케어로 머리카락 엉킴 방지

CJ제일제당 '이너비 아쿠아스틱'
히알루론산 함유 이너뷰티 식품

"앗 따가워." 최근 부쩍 추워진 날씨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난방 기구 사용이 잦아지면서 겨울 불청객 '정전기'가 찾아오고 있다. 정전기는 흐르지 않고 모여 있는 전기를 뜻하는데 마찰에 의해 외부 힘을 받게 되면 전기 충격을 주게 된다. 정전기 그 자체로는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옷을 입거나 차를 탈 때 등 일상생활에서 정전기의 찌릿한 느낌이 불쾌함을 주고 차가운 겨울바람에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전기를 예방하려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습도를 평균 수준인 50~60%로 유지하고, 옷 끝에 클립을 꽂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틈틈이 보습을 해주는 것이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뷰티 전문가들은 "정전기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성 피부는 정전기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경미한 화상까지 입을 수 있어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정전기를 방지하는 제품을 휴대하면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파우치 속 핸드크림만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면 보습력이 탁월한 수분 보습 로션 또는 크림의 핸디형 사이즈를 파우치에 가지고 다닐 것을 추천한다. 보습 전문 브랜드 '세타필'의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크림'은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바를 수 있는 저자극 수분 보습제로, 보습력과 수분 유지력이 뛰어나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크림'



CJ제일제당 '이너비 아쿠아스틱'

정전기 때문에 얼굴에 달라붙고 사방팔방으로 뻗치는 머리카락 때문에 곤란했다면 이온 케어로 정전기를 줄여주는 테이크아웃 헤어 브러시를 추천한다. '유닉스전자'의 '이온 헤어브러시'는 정전기 및 곱슬거림을 방지해주는 이온 케어로 수분을 머금은 듯한 촉촉하고 매끄러운 머릿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가늘고 유연한 브러시 모와 부드러운 볼팁으로 두피에 자극을 줄였으며 모발이 엉키는 것을 막아준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수분 섭취 습관을 되돌아 봐야 한다. 심한 정전기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일종의 신호인 만큼 이뇨 작용을 유발하는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초콜릿 등의 간식을 자제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음료나 간식 등 이너 뷰티 식품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CJ제일제당'의 '이너비 아쿠아스틱'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담은 스틱형 젤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즐길 수 있다. 달콤한 복숭아 맛으로 디저트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이너비 알약 한 알에 해당하는 히알루론산(60mg)을 담고 있어 물 없이도 더욱 간편하게 수분 충전이 가능하다.

조남호 기자 spdran@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울신라호텔이 크리스마스 한정 특별 케이크를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 베이커리 '패스트리부티크'는 별똥별이 내려앉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트리 콘셉트의 신제품 '슈팅 스타' 케이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슈(Choux)'를 쌓은 꼭대기에 별똥별을 형상화한 별 장식을 올려놓아 하얀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을 표현했다.

이번 슈팅 스타 케이크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와 다양한 크림의 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진한 초콜릿 케이크에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생크림을 겹겹이 넣어, 달콤함과 부드러운 풍미를 함께 맛볼 수 있다. 특히 케이크 위에는 딸기·녹차·바닐라 등 다른 맛의 크림이 가득 차 있는 슈들이 올려져, 겉은 하얀 슈가파우더를 입혀 골라 먹는 재미도 선사한다.

서울신라호텔 관계자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처럼, 새해에 고객들의 희망찬 소망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는 염원에서 별똥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마니아가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화이트 홀리데이(White Holiday) 트리' 케이크도 함께 판매한다. 서울신라호텔의 크리스마스 시그니처 상품인 이 케이크는 흰 눈이 방금 내린 것처럼 슈가파우더와 생크림을 올리고, 향이 깊고 진한 녹차 가루를 뿌려 풍미와 맛을 더했다.

겨울 한정 크리스마스 스페셜 케이크인 슈팅 스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화이트 홀리데이 트리는 25일까지 판매한다. 가격은 각각 6만8000원, 7만7000원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금융개혁 국민의 재산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모임이 즐거워진다!

손쉽게 주고 받는 Liiv더치페이

KB 모바일 뱅크 Liiv 리브

쉽게 나누고 간편하게 주고 받는 리브 더치페이
KB만의 신개념 모바일 뱅크 Liiv를 만나보세요



아이오아이(I.O.I)_채연

아이오아이(I.O.I)_청하

Liiv는 **쉽고**(Simple), **빠르고**(Speedy), **안전한**(Safe) KB만의 신개념 생활금융플랫폼입니다

Liiv 더치페이 방법

1 **새로운 더치페이 만들기**
사람 이름 또는 인원수 선택 후 나눌 금액 계산

2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기**
금액을 나눌 사람들에게 더치페이 요청

3 **리브 머니보내기로 송금**
리브 보내기로 한 번에 손쉽게 돈 보내주기

ANDROID APP ON Google play | Download on the App Store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Liiv 앱을 다운 받으세요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727호 (2016.10.26)

KB 국민은행

중국, 자본유출 차단 위해 M&A 통제

부동산 등 해외 투자 새 규제
10억 달러 M&A 금지 계획
500만 달러 결제땐 특별승인
위안화 가치 올 들어 5.8% ↓

중국이 최근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과 외환보유고 축소 등으로 자본유출 불안이 커지자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M&A 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외환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해외투자와 관련한 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SCMP가 입수한 중국 인민은행의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100억 달러(약 11조7350억 원) 이상의

달러·위안 환율 추이
단위: 위안 ※ 출처: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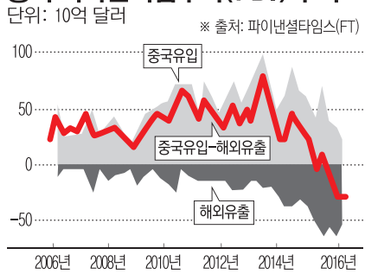


해외투자 및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M&A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영기업은 해외 부동산 거래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또 상하이시 외환당국은 최근 산하 은행 지점장들에게 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결제 시 당국의 특별 승인을 거치도록 지시했다. FT도 중국 외환당국의 해외 자금 결제 시 심사 기준이 종전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강화됐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경기가 둔화하자 새 성장동력을 찾고자 해외에서 적극적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단위: 10억 달러 ※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인 M&A를 펼쳤다. 중국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는 1460억 달러로, 이미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전체 1210억 달러 기록을 웃돌았다. 리서치업체 로디엄그룹은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유럽 투자가 유럽의 중국 투자보다 약 세 배 많았다고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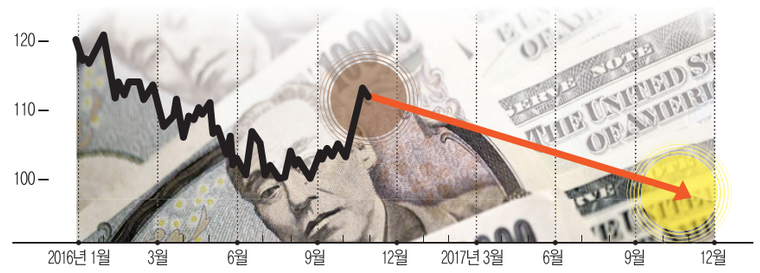
이에 자본유출 불안이 더욱 고조되면서 당국이 마침내 M&A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5.8% 하락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 폭 하락을 향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당국이 달러화를 매도하고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0월 말 3조1200억 달러로 201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은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막고자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 추세는 분명하다. 정부는 자본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종종 비공식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푸는 방법을 펼쳐 시장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런 접근법은 금융시장 자유화라는 개혁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경제 자유화와 그에 따른 변동성보다 안정적이고 통제적인 수단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버블 붕괴시 달러·엔 환율 전망 ※자료 : UBS



"엔화 약세 과도" 경고 잇따라

트럼프 당선인 재정정책 기대감에
달러·엔 환율 114엔대까지 치솟아
"거품 빠지면 98엔대 추락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114엔대까지 치솟았던 달러·엔 환율이 98엔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UBS그룹 자산운용사업부가 트럼프 버블이 무너지게 되면 내년 달러·엔 환율이 98엔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달러·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바야시 도루 UBS자산운용 일본증권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엔화 트레이더들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 완전히 잘못 베팅하고 있으며 엔화 가치가 급등해 내년 이맘때쯤 달러·엔 환율이 98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세금 인하와 함께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10년간 최대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기존의 각종 무역정책을 철회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는 미국 대선 이후 연일 강세를 이어갔으며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25일에는 달러·엔 환율이 114엔까지 도달했다. 대선 이후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8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덕분에 그사이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도 수출주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10개월 만에 1만800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바야시 책임자는 시장이 단순한 희망에 과도하게 매수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게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트럼프 정책을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현재 '비이성적인 행복감'에 포장돼 있으며 이는 상당한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바야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금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엔화는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며 내년 말께 달러·엔 환율이 98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8엔대로 떨어진다면 2013년 이후 엔화는 초강세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UBS 외에도 최근 시장에서 엔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엔화 환율을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트럼프 당선 이후 6개월 내로 달러당 엔화 가치가 90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도 내년 말까지 달러·엔 환율이 99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0.1% 상승한 112.43엔을 나타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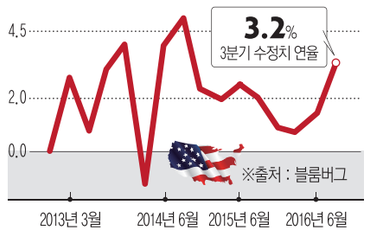
美 3분기 GDP 성장률 2년새 최고치… 금리인상 힘 실린다

잠정치보다 0.3%P 오른 3.2%
고용시장 개선·소비 상승세 덕
연준 이사 "금리인상 근거 분명"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는 연율 3.2%였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됐던 잠정치 2.9%에서 상향 수정된 것이자 2년 만의 최고치로 미국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를 입증했다.

미국 GDP 성장률 추이



기업 투자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고용시장 회복을 배경으로 개인소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 전체 지표 호조를 견인했다. 기업 설비투자의 척도가 되는 비주택 고정투자는 0.1% 증가로 잠정치 1.2% 증가에서 대폭 하향 수정됐다. 반면 미국 경제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연율 2.8% 성장률로 잠정치 2.1%보다 개선됐다.

콘퍼런스보드가 이날 별도로 발표한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7.1로 전월의 100.8에서 오르고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개인소비가 미국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기업의 세후이익은 전 분기 대비 3.5% 늘어난 1조6940억 달러(약 1988조 원, 연환산 기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 늘어나 2012년 4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4분기 성장률이 지난 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으로 내년 성장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책효과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종전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이사는 이날 인디애나폴리스 강연에서 "12월 금리인상 근거는 강해졌다"며 "고용은 계속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연준 목표인 2%를 향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프로축구팀 전세기 추락… 브라질 '충격'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 등 77명을 태운 전세기가 28일(현지시간) 밤 콜롬비아 산악 지역에서 추락해 71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브라질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각지에서 애도 물결이 이는 가운데 29일 샤페코의 구장 아레나 콘다 아레나에 모인 팬들 중 한 소녀가 오열하는 친구를 위로하고 있다. 샤페코엔시 선수들은 30일 열리는 중남미 축구대회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 출전하고자 메데인으로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샤페코/EPA연합뉴스

伊 은행 부실대출, 유로존 경제 뇌관

유로존 부실대출 3분의 1 차지

이탈리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고질적인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대출 문제가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의 부실대출 문제의 진원지로 이탈리아를 지목했다. ECB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유로존 은행의 전체 부실대출 9900억 유로(약 1229조5000억 원) 중 약 3분의 1을 이탈리아 시중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14개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및 부실채권, 기타 상환되지 않은 부외거래 등의 규모는 286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이탈리아 시중은행이 내준 대출 10건 중 1건 이상이 부실대출이라는 이야기다.

이탈리아의 부실대출 문제는 오래전부터 유로존의 뇌관으로 지목돼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부실대출이 급증했고 여기에 추가로 내줬던 대출이 경기 악화 여파에 상환되지 않으면서 부실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반면 이탈리아 은행권이 보유한 대손충당금은 이들이 떠안은 전체 부실대출 규모의 44.6%에 불과하다. 즉 보유한 자산 규모가 부실대출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부실대출 문제는 이탈리아 신규대출을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물론 키프로스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부실대출 문제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시장의 격동 시기에 맞물려 중대 위기로 꼽히며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티파니, 트럼프 당선으로 울상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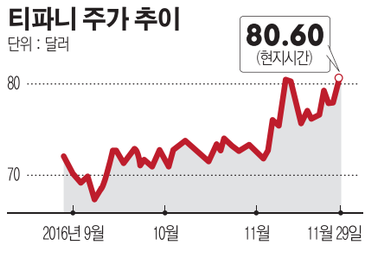
뉴욕매장 트럼프타워 옆에… 검문검색 강화·反트럼프 시위… 고객 급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고급 보석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울상이다.

티파니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옆 플래그십 스토어인 티파니 매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맨해튼 5번가에 있는 티파니 플래그십 스토어는 전 세계 티파니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트럼프타워에 반(反)트럼프 시위대가 연일 몰려오고 보안이 강화되면서 티파니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당선인 경호를 위해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지면서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매년 맨해튼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를 즐기던 쇼핑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맨해튼 5번가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 건물이자 트럼프타워 옆을 차지한 티파니 매장이 몸살을 앓는 이유다.

티파니 주가 추이
단위 : 달러



티파니의 회계 3분기(8~10월)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티파니 매장이 받은 직접적인 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 레드릭 쿠메널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 실적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매출은 작년보다 1.2% 증가한 9억493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 4.5% 증가한 9510만 달러다.

티파니는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이날 티파티의 주가는 전날보다 3.13% 상승한 80.60달러로 거래를 마쳤으나 시간 외 거래에서 0.11% 상승해 오름폭이 제한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美 차기 재무장관에 골드만삭스 출신 므누친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므누친(사진)이 미국의 차기 재무장관에 낙점됐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골드만삭스 임원을 역임하고 대선 과정에서 캠프 재무를 책임진 므누친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로써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은 로버트 루빈, 헨리 폴슨에 이어 므누친이 세 번째다.

므누친은 월가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 엄청난 이익을 내는 수완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파트너로 활동했고, 이후 자신의 헤지펀드를 설립해 조지 소로스와 같이 일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둥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거액의 감세를 주도할 고위 관리로 변모한다. 시장은 월가 출신의 므누친이 재무장관이 되면 금융규제 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상가임대 고전하던 호반건설 분양으로 바꿨더니 잘나가네

'아브뉴프랑' 브랜드 직영방식서 변경
배곧 일주일새 완판…시흥은계 90%
"2년간 상가관리 등 책임 인기 높아"


하남 미사강변도시 호반 써밋플레이스 조감도.

'아브뉴프랑'이라는 브랜드로 상가임대 시장을 개척한 호반건설이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를 분양방식으로 공급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분양에 나선 시흥 은계 호반 써밋푸르지오 주상복합 상가 계약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상복합에 들어서는 상가는 총 109개로, 29일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이 10여 개에 그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이 6개월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기간에 물량이 소진된 셈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지난 7월 분양에 나섰던 시흥 배곧 호반 써밋푸르지오 상가는 총 408개가 이틀 만에 80% 계약됐고, 일주일이 채 안 돼 완판 기록을 세웠다. 시흥 은계 인근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2월 1일까지 '시흥 목감 호반 베르디움 5차' 계약이 진행되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상가 분양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9일만 해도 2건이 계약됐다"고 말했다.

이달 분양에 나선 하남 미사강변도시 호반 써밋플레이스 주상복합단지 내 상가도 분양 훈풍이 불며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상가는 지상1~3층 총 242개 점포로 현재 약 80%가 계약을 완료했다.

호반건설은 2013년 '아브뉴프랑'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복합형 수익형부동산 사업에 발을 디뎠다. 판교와 광교에 각각 1호점, 2호점을 내고 100% 임대형 상가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1호점과 2호점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당초 '아브뉴프랑' 브랜드의 직영상가로 운영하기로 했던 시흥 은계, 하남 미사 내 주상복합 단지내 상가가 분양방식으로 공급된 것이다.

수도권 내 상가 분양대행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분양하는 상가의 경우 회사 측이 2년간 상가 관리 등을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잔금대출 옥죄니…건설업계 '발 冬冬'

내년부터 집단대출 여신심사 강화
은행들 대출 꺼려 先분양 후 협의
중소형사 등 떠밀려 고금리로 계약
주택건설協 "가이드라인 철회를"



정부 규제과 불안한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잔금대출까지 옥죄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발표하자 건설업계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2019년부터 은행권에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매년 추가로 가계부채를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깐깐해진 여심심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물론 집단대출을 받아 줄 금융회사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집단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건설업계의 수익을 이끌고 있는 만큼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위축을 걱정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사업 관계자는 "잔금을 내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으면 시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잔금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보통 건설사는 분양 전 은행과 집단대출을 협의한 뒤 분양을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꺼리면서 분양을 먼저 해 놓고, 계약률 등을 봐가며 은행과 집단대출을 협의하는 상황이다. 비인기 지역에 분양한 일부 건설사들은 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높은 금리를 요구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뜻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관계자는 "11·3 대책 등의 효과로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현재 상황에서 잔금 대출에 가이드라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잠정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에서 찾은 체지방관리 솔루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더 쉽게 붙는 건
몸 속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의 몸 속 변화를 읽으면 필요한 솔루션이 보입니다
녹차의 마이너스푸드 원리를 연구한 메타그린,
고지방, 고열량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드립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 080-023-5454
VITALBEAUTIE

현대산업개발, 창립 40주년 새 슬로건 발표

정몽규 회장 "독창성 바탕 새 가치 창출을"

현대산업개발이 29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 슬로건을 발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그룹(HDC그룹) 슬로건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브랜드(아이파크, IPARK) 슬로건으로 'Imagine'을 공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새로운 슬로건과 디자인을 그룹 전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그룹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 슬로건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은 고객에서 지속가능한 신뢰를 제공하고,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며 함께 소통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브랜드 슬로건 'Imagine'은 고객의 삶에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외부 공개에 앞서 지난 24일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슬로건과 가치체계 등을 공개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과거 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미래 산업변화에 맞서 철저한 실행과 끊임없는 변화, 우리만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HDC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 HDC

추천 경매 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감정가(만원)	최저입찰가(만원)	감정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계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443-1,-26 삼성브래뉴 2층 203호	58	256,000,000	204,800,000	80%	12월 19일	북부6	2016-10544
아파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SK북한산시티 106동 2층 202호	115	450,000,000	360,000,000	80%	12월 19일	북부6	2016-10292
주상복합(아파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8-2 파크프라자 9층 901호	72	335,000,000	268,000,000	80%	12월 19일	동부4	2015-52170
주상복합(아파트)	서울 중랑구 묵동 170-1 묵동자이2단지 202동 21층 2102호	102	615,000,000	492,000,000	80%	12월 19일	북부5	2016-5399
아파트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10 신안 4동 3층 304호	55	253,000,000	202,400,000	80%	12월 20일	중앙9	2016-8061
아파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67 버들치마을 성복자이2차 210동 14층 1402호	125	637,000,000	445,900,000	70%	12월 13일	수원3	2015-36111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73 대화마을 303동 15층 1502호	84	320,000,000	224,000,000	70%	12월 22일	고양3	2016-9120
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 112동 14층 1406호	60	230,000,000	184,000,000	80%	12월 13일	의정부5	2015-6824
아파트	인천 서구 신현동 151-3 ,-20 효성 102동 3층 302호	71	150,000,000	105,000,000	70%	12월 20일	인천2	2016-501905
아파트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라이프 3동 4층 406호	100	147,000,000	102,900,000	70%	12월 15일	인천25	2016-26404



◇서울 도봉구 창동 443-1 삼성브래뉴 =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11월 준공한 1개동 단지로 해당 물건은 8층 건물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58.4㎡, 방 3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이 단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4호선 쌍문역과도 가깝다. 창3동주민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힘찬병원, 초안산, 천안산실내배드민턴장 등이 인접해 있다. 창림초등학교,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창북중학교, 창동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 감정가 2억56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2억480만 원이다. 입찰은 12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6계. 2016-10544.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SK북한산시티 = 106동 2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5월 준공한 54개동 5327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24층 건물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14.85㎡,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단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 2017년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도 가까이 있다. 서삼각산동 주민센터, 정릉파출소, 솔샘문화정보센터, 삼각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삼각산초등학교, 미양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 길음초등학교, 삼각산중학교, 길음중학교, 삼각산고등학교, 대일관광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서경대학교 등이 가깝다. 최초 감정가 4억50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 매각가는 3억6000만 원이다. 입찰은 12월 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6계. 2016-10292.

미래를 함께 하는 멋있는 금융

신한금융그룹



넌 누구니?

위험한 천적이 많은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The First Penguin '판귄'이에요!



벌써 700만 고객이 가입한
신한 FAN!
새롭고 즐거운 서비스를
저 판귄과 함께 즐겨보세요 ㅎㅎ

볼래요?
놀라운 생활의 결정판 FAN

판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판을 바꾸는 일!
언제나 앞선 생각으로 고객이 원하는 생활의 판을 만들어내거든요
공연, 맛집 예약은 물론 운세, 판툰에 포인트적립까지 한 판에!
이제 판귄이 안내하는 놀라운 세상을 신한 FAN에서 함께 하세요

내 손안의 생활 플랫폼
신한 FAN 판



신한 FAN이란?
간편 결제서비스를 넘어 금융과 생활, 생활과 생활이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2,2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한카드 FAN프렌즈와 함께 생활의 판을 바꿉니다

판귄?
신한카드 FAN의 새로운 캐릭터로, 남들이 가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 바다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First Penguin을 상징합니다
판귄의 하트모양 얼굴은 따뜻한 마음을, 동그랗고 뚜렷한 눈은 지혜로움과 통찰력을 상징하며, 또한 판귄은 파란색 수트를 입으면
Hero로 변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해외채권 비중 최대 80%로 늘려 위험분산"

'자산규모 60조' 김희석 농협생명 부사장

기존 국내 집중된 투자구조서 지역 다변화 강조
부동산 대출·세컨더리 펀드 등 틈새시장도 공략



"내년에 해외채권 비중을 28~29%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채권 재구성, 새로운 대체투자가 과제입니다."

김희석〈사진〉 농협생명 자산운용총괄 부사장(CIO)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KT&G서대문타워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부터 미국채 30년물을 사들이고 있다"며 "단기채권은 국내, 장기채권은 미국 중심으로 채권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생명은 자산규모 60조 원으로 생명보험 업계 4위에 해당하는 대형 보험사다. 김 부사장은 농협생명이 최근까지 고수했던 국내 채권에 집중된 자산운용 구조를 바꿔,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 부사장은 "농협생명에 처음 왔을 때 해외채권 비중은 1%에 불과했다"며 "이에 운용상 채권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외증권부를 통해서 연간 해외채권 비중을 10%씩 확대하는 작업을 속도 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내채권 50%, 해외채권 30%를 가져가면서 자산운용 가운에 채권 운용 비중은 80%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채권만 고집하지 않고 채권 지역 다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최근에 신설한 해외대체부를 통해 대체투자 틈새시장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그는 "해외 부동산대출, 세컨더리 펀드 등 기존에 하지 않던 투자를 시도할 것"이라며 "역량을 갖춘 직원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내년도 농협생명 자산운용 수익률 목표치를 3%대 초반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보험시장,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위험자산 투자는 대폭 줄일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IFRS17대비를 위해서 영업은 보장성 상품 위주로 하고, 자산은 위험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은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면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에 농협금융으로 영입됐다. 부실채권투자전문회사인 써버러스코리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체투자 전문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지희·박규준 기자 jhsseo@

'제 발등 찍은' 미디어 재벌 머독 산하 언론이 투자회사 의혹 폭로

혈액검사 진단기계 '테라노스' WSJ 기술 의문 제기로 몰락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사진〉이 몰락한 스타트업 테라노스에 자금을 대거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테라노스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6억3200만 달러(약 7382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머독 회장의 돈 약 1억 달러도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독은 뉴스코퍼레이션과 21세기폭스의 회장. 뉴스코퍼레이션은 경제 일간인 WSJ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혈액 한 방울로 수십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테라노스의 기술에 처음 의문을 제기한 언론이 바로 WSJ이었다. WSJ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테라노스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게 됐다. 머독도 예외는 아니었다.

테라노스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었다. 피 한 방울로 70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특허를 선보인 덕분이었다. 테라노스는 미국 특허 18개, 역외 특허 66개를 얻었고, 기업 가치는 한때 90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승승장구하던 테라노스의 몰락은 WSJ에서 시작됐다. WSJ는 작년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테라노스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당국으로부터 실험실 운영을 금지당했다. 지난달에는 혈액검사 사업에서 철수했다. 테라노스의 기술이 과장됐다고 판명되자 1년 전 45억 달러였던 엘리자베스 홈즈 최고경영자(CEO)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유증 발표후 '주주 달래기' 나선 신동우 나노 대표



서울시는 29일 에너지 정책의 추진동력이 될 서울에너지공사의 초대 사장에 박진섭〈사진〉 현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을 임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에 송부했다. 박 신임 사장은 지난 24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받았다.

서울시는 "박 사장은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핵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보급하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선애 기자 lsa@

하루만에 주가 27% 떨어져
"올해 유럽 시작 美·日서 성과"
최근 글로벌 영업 실적 강조
차입금 상환·설비증설 계획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도 국내외 대형 발전소 촉매 공급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권 채무를 해소하고, 선자금 투입이 요구되는 대형 국내외 탈질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신동우〈사진〉 나노 대표이사가 29일 유상증자 발표 후 폭락한 주가를 떠받치고자 '당사 유상증자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일신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인내심을 갖고 나노를 지원해 준 주주들께 저희 임직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이날 직접 설명서를 발표하고 사업계획과 향후 재무구조 개선 및 흑자 경영 달성 의지를 밝히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나노 주가는 지난 25일 유상증자 소식에 장중 전일 대비 27.14% 폭락한 153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 대표는 특히 지난 2년간 확대해 온 글로벌 시장 영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나노의 올해 유럽시장 공급은 500만 유로(약 6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미국, 일본 시장에서도 영업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석탄 화력이 주에너지원인 동유럽, 베트남, 인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편, 나노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우선 차입금 상환에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산설비 증설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sun@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왼쪽 첫 번째)가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봉사'활동 현장에서 파트너사 임원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과 김장을 담그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하이마트

협력사와 함께 고무장갑 낀 이동우 대표

〈롯데하이마트〉

독거노인 위한 김장나눔 봉사
동반성장 의미도 함께 되새겨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가 중소 파트너사 대표를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들은 함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동반성장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롯데하이마트는 29일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와 롯데하이마트 사롯데 봉사단, 파트너사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동반성장과 나눔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4년부터 매년 파트너사들과 함께 김장을 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이날 행사는 대유위니아,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 등 김치냉장고를 제조하는 파트너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롯데하이마트 사롯데 봉사단과 파트너사 임직원은 김장 1500kg을 담갔다. 점심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700여 명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을 점심으로 대접했다. 오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장김치를 들고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부이사관 승진 △아주통상과장 김대자 ◇과장급 전보 △창조행정담당관 손호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정책연구본부장 공성용 △환경평가본부장 이영수 △미래환경연구본부장 박정규 △성과관리실장 양일주 △국토자연연구실장 황상일 △대기환경연구실장 주현수 △자원순환연구실장 한상운 △공공인프라평가실장 김태윤 △국토정책평가실장 사공희 △자원에너지평가실장 신경희

◆한국남부발전 ◇1직급(갑) 승진 △감사실장 심재원 △기획처장 서정출 △관리처장 김상덕 △조달협력처장 서영덕 △발전처장 정필수 △국내사업처장 윤진영 △하동 제1발전소장 김광규 △부산발전본부장 홍주영 △안동발전본부장 박두만 △신인천발전본부 전출요원(실장) 김창환 ◇1직급(갑) 이동 및 전출연장 △엔지니어링처장 이충호 △하동발전본부장 정연수 △하동 제2발전소장 박능출 △신인천발전본부장 김우곤 △영월발전본부장 최청 △신인천발전본부 전출요원(처장) 박석호 전출연장(칠레 Kelar)

◆대신증권 ◇이사대우 부서장 승진 △경영기획실 김호중 △프로젝트금융본부 권택현 ◇부서장 신규선임 △감사실 이성영 △투자금융실 심현보 △마켓전략실 박형중 △파생상품2본부 강현석 △법인금융상품본부 조상규 ◇지점장 신규선임 △반포지점 장영준 △포항지점 김경렬 ◇이사대우 지점장 전보 △일산지점 박진규 △송탄지점 유기상 ◇부서장 전보 △패시브솔루션본부 이상헌 △법인영업본부 손귀연 △자산운용본부 문병식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찬명 △인수채권부 서영익 ◇지점장 전보 △동대문지점 한명희 △신촌지점 서정국 △부천지점 박경환 △인천센터 김송회 △명일동지점 서신영 △수원지점 이석영 △양재동지점 서상욱 △도곡역지점 양영신 △오산센터 김경남 △분당센터 박성희 △대구센터 권기범 △동대구지점 이재상 △복현지점 이기서 △무거동지점 권기수 △울산지점 김경민 △나주지점 노영래 △상무지점 남상구

◆대신저축은행 ◇1급 부서장 승진 △전략금융부 장석철

◆대신자산운용 ◇이사대우 그룹장 승진 △리서치운용그룹 김용식

◆㈜GS ◇부사장 승진 △업무지원팀장 여은주

◆GS에너지 ◇부사장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조효제

◆GS칼텍스 ◇부사장 승진 △화학사업총괄 권혁관 △법무실장 노정일 △생산지원공장장 이두희 ◇전무 승진 △회계부문장 유재영 △싱가포르법인장 이승훈 △방향족사업부문장 이창배 △전사최적화부문장 한상진 ◇상무 신규선임 △수급부문장 김진 △RM부문장 박용철 △홍보부문장 이상훈 △기술지원부문장 이용은 △소매기획부문장 조광옥 △인사실장 조병수

◆GS리테일 ◇전무 승진 △수퍼사업부 1부문장 김시엽 △전략부문장 권익범 ◇상무 신규선임 △수퍼사업부 3부문장 한경수 △편의점사업부 MD부문장 정호민

◆파르나스호텔 ◇상무 신규 선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총지배인 김연선

◆GS EPS ◇전무 승진 △경영기획부문장 윤길상

◆GS글로벌 ◇상무 신규선임 △자원사업부장 양성철

◆GS엔텍 ◇전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겸 영업본부장) 도정해

◆GS E&R ◇상무 신규선임 △인재개발실장 김수연

◆GS건설 ◇부사장 승진 △플랜트부문 대표 김형선 ◇전무 승진 △주택영업담당 조재호 △홍보업무실장(겸 홍보담당) 허태열 △Clean Fuels PJT / PD 서광열 △RabighII PJT CP-3/4 공사총괄 이광일 △NSRP PJT / PD 김진태 △전력부문 대표 임기문 ◇상무 신규 선임 △국내법무담당 한승헌 △전력기획담당 신현구 △플랜트공사담당 김선우 △RRE-2 PJT / PD(겸 RRE-7 PJT / PD) 윤준교 △플랜트계약관리담당 정철규 △플랜트CM3팀장 이원장 △토건해외공무담당 박용철 △인재개발실장 조승열

◆㈜LS ◇전무 승진 △경영관리부문장 CFO 한상훈 ◇상무 승진 △사업조정부문장 이준우

◆LS전선 ◇전무 승진 △기술개발본부장 CTO 김동욱 ◇상무 승진 △전략기획부문장 CSO 주완섭 ◇신규 선임 △영업/생산지원부문장 강영성

◆LS산전 ◇부사장 승진 △CRO 겸 경영관리본부장 겸 중국사업본부장 박용상 ◇전무 승진 △연구개발본부장 CTO 권봉현 △전력사업본부장 오재석 △산업자동화사업본부장 구본규 ◇상무 승진 △사업전략부문장 신영식 ◇신규 선임 △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상무 선임) 최준 △전력고압연구단장 안길영 △전력국내사업부장 구동휘 ◇이동 △전략혁신본부장 CSO 전무 안세진

◆LS-Nikko동제련 ◇전무 승진 △재경부문장 CFO 강중구 ◇신규 선임 △SCM통합부문장 홍형기

◆LS엠트론 ◇상무 승진 △경영관리부문장 CFO 윤성욱 ◇신규 선임 △지원부문장 CHO 박명호 ◇이동 △전략기획부문장 CSO 상무 강석호 △재경담당 이사 박찬성

◆가온전선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CHO 겸 구매부문장 CPO 정현 ◇신규 선임 △재경부문장 CFO 김명균

◆E1 ◇전무 승진 △지원본부장 CHO 강정석 ◇신규 선임 △미래전략실장 겸 해외사업본부장(상무 선임) 남기명 △영업본부장 김수근

◆예스코 ◇신규 선임 △안전부문장 정인철

◆LS글로벌 ◇상무 승진 △경영관리부문장 CFO 겸 비철금속사업부장 이상범

◆LS메탈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 CEO 남기원

◆LS오토모티브 ◇전무 승진 △중국사업본부장 겸 설계담당 박운택 ◇상무 승진 △인도법인장 이희종 ◇신규 선임 △중국사업본부 무석법인장 지영도 △해외사업본부 글로벌지원담당 하완수 ◇이동 △경영지원부문장 CFO 부사장 김원일 △인사노경부문장 CHO 상무 김연재

부음

▲박찬형(유진투자증권 리테일영업본부장)씨 모친상 = 29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7시 30분, 051-607-0298

▲백성신(백영고 이사장)·대원(백영 대표이사)·승원(창비 대표이사)씨 부친상, 원석재(안일자동차 대표이사)씨 장인상 =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2-3410-6919

▲김우식(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씨 부친상 = 29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월 1일 오전 9시, 02-958-9548

올림픽 양궁 금메달 장혜진 '여성체육대상'

지도자상에 골프감독 박세리



리우올림픽 여자양궁 2관왕 장혜진(가운데)이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윤곡여성체육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우올림픽 양궁 2관왕 장혜진(29)이 2016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최고상인 '윤곡여성체육대상'을 받았다. 여성체육지도자상은 우리나라의 골프 금메달 획득을 도운 박세리(39) 감독이 받았다.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조직위원회는 2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장혜진은 "올해는 정말 잊지 못할 최고의 한해였다"며 "올림픽 금메달로 충분한데 대상의 영예까지 얻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 앞으로 여성체육인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리우올림픽에서 박인비의 금메달 획득에 도움을 준 공로로 지도자상을 받은 박세리 감독은 "대단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 지도자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응원하는 상으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서울 25시, 夜

제6화 11월의 파비안느 ㉒

속도를 90킬로 가깝게 올렸더니 가랑비가 얼굴을 때리는 감촉이 아팠다.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고개를 숙이고 황지를 향해 달렸다.

길이 미끄러워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렵지가 않았다. 무작정 달리고 싶었다. 훗날 생각해 보니 그날 죽음을 향한 질주는 글을 못 쓴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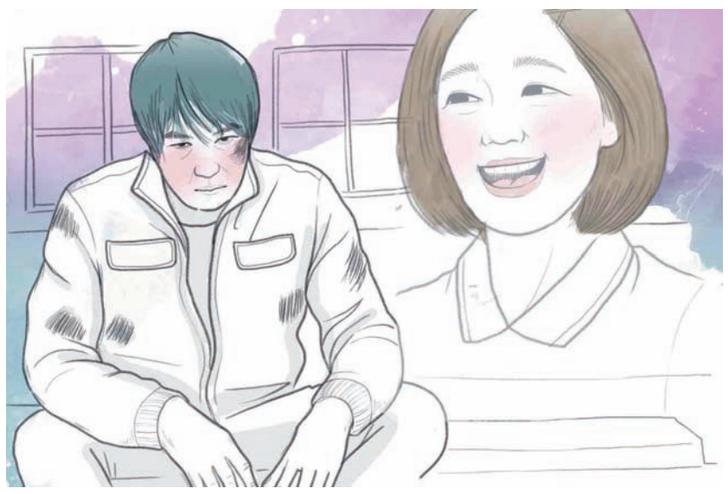
그날은 무조건 달리고 싶었다. 산모퉁이 길이 빠르게 다가오면 노련한 모터사이클 선수처럼 허리를 옆으로 눕히며 능숙하게 코너를 돌았다.

멀리 캄캄한 어둠 속에 KBS 중계 송신탑의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준호는 송신탑의 빨간 불빛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달려가다 사고가 나면 개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줄였다.

장성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는 속도를 40킬로 정도로 줄였다. 장성에서 황지까지 10km 정도다. 빗속에서 그 길을 거의 순식간에 달렸더니 어느 정도 술도 깼다.

오른쪽은 산과 도로 사이에 깊이 30cm 정도의 배수로다. 왼쪽은 황지천이다. 검은 먹물이 흐르는 황지천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흩어져 있다.



오토바이에서 쏘는 나이트불빛 안으로 은빛 철사 토막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앞으로 산모퉁이가 보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퉁이 길을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돌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준호는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오토바이가 옆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느끼며 기절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준호는 얼굴로 떨어지는 빗줄기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얼굴 쪽은 따뜻한데 하늘을 향한 얼굴에는 샤워 줄기 같은 비가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다.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었다.

준호는 시동이 꺼지지 않은 오토바이 바퀴가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술이 덜 깬 상황이라 견딜 만했다. 오토바이 라이트불빛을 이용해서 키를 뺐다.

오토바이는 배수구 턱에 걸려 있었다. 서 있는 곳이 길이라는 것만 느껴질 뿐 어디가 어딘지 가늠을 할 수 없었다.

황지 쪽보다는 장성 쪽이 가깝다는 생각에 비를 맞으며 걸었다. 또 다른 산모퉁이가 나왔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불빛이 보였다.

준호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무조건 들어갔다. 길가에 있는 두 칸짜리 오두막집 방문을 두드렸다.

"뉘! 뉘여."

방문을 열어 준 노파가 깜짝 놀라며 뒤로 도망을 쳤다. 노파 옆에 있던 노인도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 그렇구먼. 여기 문곡일세. 우선 피나 닦지 그랴."

노인이 대학노트 크기의 거울과 수건을 내밀었다.

준호는 비로소 오른쪽 광대뼈 옆쪽을 시멘트에 문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거리로 나섰다.

준호는 비를 맞으며 한 시간 동안 서 있다가 겨우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장성병원으로 갔다.

텅 비어 있는 응급실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의사가 새끼손가락 크기의 망치로 준호의 무릎이며 팔 관절을 두들겼다. 다행히 부러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보자고 했다.

의사가 막 일어서는데 여러 명이 침대를 밀며 들어왔다.

침대에는 깡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가족인 듯한 사람 몇 명이 절망하는 얼굴로 침대 주변에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진폐증환자였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등에 닿을 정도로 힘들어하자 가족들이 숨죽여 울었다.

준호는 문득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자신처럼 느껴졌다. 목이 말라서 담뱃불을 붙이는데 간호사가 노려봤다.

한밤중의 병실 복도는 유령이 나올 것처럼 음산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등 뒤 창문 밖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응급실 안에서 아버지! 하는 통곡소리와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준호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머릿속을 스쳐가나 했더니 형제들의 얼굴이 그려졌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주검으로 누워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도를 봐야 어딘지 알아볼 수 있을 탄광촌의 병원에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을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피를 토하는 아픔이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준호는 얼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불처럼 뜨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응급실 안에서 통곡 소리가 더 크게 퍼져 나왔다.

준호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며 허리를 숙였다.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보였다.

내일 사표를 내고 장성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순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순영은 행복을 주는 파비안느 같은 존재다. 하지만 순영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장성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끝〉

'트럼프의 미국'을 보는 중국의 복잡한 속내

중국은 지금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중국에도 분명 예상밖의 결과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지만은 않은 듯 보인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반기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거명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트럼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국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다. 한국의 7% 지지율과 대비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국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때문에 미·중 간 통상 마찰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정책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특히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트럼프 당선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커 보인다.

트럼프에 대한 기대는 중국 일반인들 사이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 기대감은 사실 트럼프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기득세력에 대한 반기였듯이 일반 중국인들 역시 클린턴으로 대표되는 기존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로 표출된 듯하다. 즉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기존 관행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트럼프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의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중국 반응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복잡하다.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밖의 선거 결과가 중국의 국익에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을지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며 주판을 튕기고 있다. 일단은 기대감 속에서 우려도 표출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내심 오바마 시기 중국에 전략적 압박이 되었던 미국의 재균형 전략이 후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아·태지역 경제 주도권 경쟁을 촉발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트럼프의 명확한 반대 의견이 그러한 기대의 배경이 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기업가적 특성이 강해 역대 정부와 달리 가치와 인권을 수단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도 있다.

다른 한편 일단 트럼프의 등장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 중국은 특히 통상 분야에서의 새로운 압박이 강도 높게 전개되면서 미국과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신중 모드다. 예컨대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왕양(汪洋) 부총리는 트럼프의 대중 정책에 대선 결과 못지않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단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적 관심은 오바마 정부 이후 고조되어온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의 향방이다. 트럼프 당선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적 개입의 축소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의 고도 성장을 통한 부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미국 쇠퇴의 반사효과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상대적 부상'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왔다.

트럼프 정부가 과연 선거 공약처럼 '신고립주의' 정책을 구체화할지 현재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오바마 정부와 비교할 때 트럼프 정부는 상대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데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제적 개입,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조정기가 필요할 듯하다.

중국이 미국의 재균형 전략 약화 추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향후 미·중 관계 전개의 초점이 될 것이며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관전 포인트이다. 즉 지금까지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 또는 자극하면 이에 대해 중국이 반응,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간의 갈등, 경쟁, 협력의 복합적 관계가 구성되어왔다. 향후 트럼프 정부 초기의 일시적 조정기를 중국이 대외적 영향력과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전개할지 아니면 반대로 중국 또한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국내 우선의 정책 선택을 하게 될지가 중요한 변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열변을 토하는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이달 22일 남미 순방 중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라스베이거스·산티아고/AP·AFP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 내세운 트럼프 당선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기회?
아직은 자국 경제발전이 우선순위
아시아서의 세력 경쟁 완화 가능성
한국엔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도전

일단 중국은 섣부르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망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소위 중국발 '글로벌 리더십' 또는 '중국의 미국대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이 되기에 아직은 중국의 역량이 부족하며, 미국 역시 전통적 의미의 '고립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애써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국내 우선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듯이 중국 역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속사정도 있다. 특히 비록 18기 6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가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권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년 19차 당 대회에서 대대적인 권력 교체가 이뤄질 때까지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에서 "중·미 협력은 중요한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위대하고 중요한 국가로 미·중 양국은 상호 호혜할 수 있다"고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 단순히 외교적 수사만이 아닐 수 있다. 즉 양국이 직면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각각의 국내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정중동의 허니문 시기를 유지할 현실적 필요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미·중 간의 아시아에서의 직접적 세력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한국이 직면해왔던 미·중 경쟁으로 인한 압박과 딜레마도 동시에 완화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한국의 딜레마는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소지도 있어 보이며, 심지어 새로운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이미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맹국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을 '대리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의 직접적 국제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에 오히려 동맹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균형 전략의 위축을 보완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국 등 동맹국의 비용 부담 증대 필요성을 거칠게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역시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이면서도 최소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망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인식하면서 주변 국가들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통해 동맹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단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트럼프 정부 초기에는 중국의 역할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미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정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북핵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아시아에서의 '편가르기식 대리 세력 경쟁'에 도구로 동원되면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의 잠정적 조정기가 한국에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도전이 한국이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미·중 간의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지혜를 모으고 선제적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 STORY 어쩌다 싱글
PART1. 자기다운 삶은 '비교급'이 아닌 '절대급'으로 사는 것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PART2.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며 나만의 삶 돌보기
PART3. 7人 7色 나를 위한 돌봄 이야기
PART4. 나를 위한 투자 시작해볼까요?
PART5. 美, 온전히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
PART6. 스스로에게 자격증을 주는 마음 다스리기
PART7. 몸부터 살려라
PART8. 동년기자에게 듣다 최은주·장영희·박종섭·강신영·김종억·최원국 동년기자

브라보가 만난 사람



세상 앞에서 당당한 마임이스트 유진규
힘이 다하는 날까지 무대 위에 서겠다



60세에 시작한 기자로서의 인생 2막, 희망의 증거가 되다
기자 겸 사진작가 '조이스 리', 용감무쌍한 길 위의 여자



"치과의사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죠!"
장영준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문학관 답사기 | 한무숙 문학관
문화가 흐르는 길 옆, 문학 숙녀의 아지트를 탐방하다
혜화역 4번 출구를 나와 혜화동 로터리에서 길을 건너 3분가량을 걸었다. 무심히 걷고 뛰던 대학로 길 옆. 이 익숙한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니면서도 문학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니. 긴 숨을 내쉬고, 무거운 나무 대문을 열고, 그녀와 첫인사를 나눴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정책발언대

김 선 동 새누리당 의원

분식회계 막을 제도적 장치



201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분식회계 기업의 내부고발자에게 3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포상금 지급을 승인하였다. 미국 금융개혁법률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회계부정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도이치뱅크 회계부정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에게 825만 달러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010년 내부고발제도 도입 이후 SEC는 지난 5년간 총 1만400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아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를 성공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부정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부신고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보다 앞선 2006년 시행된 이 제도의 실적이 6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성공에 고무되어서인지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한도를 5배까지 늘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 회사 주가를 높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손실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고, 예상 수익은 올해 실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라고 말하는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경영관리본부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회계담당자들은 회장님 지시를 거부하고 해고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범법자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 5조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꼭 이런 상황이다. 전직 CEO는 손실을 이익으로 보이게끔 지시하고, 임직원들은 적극 가담했으며,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도 수년간 눈치를 못 챘거나 눈을 감은 결과가 아닐까? 결국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소액주주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 청문회 과정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부정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10월 28일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분식회계로 얻는 부당 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과 이를 막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부터 부정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 3차 담화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본인은 억울하다는 부분이다.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결국 주변을 관리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임기 단축'을 비롯한 진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담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본인이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했는데, 백 번 양보해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 사업체인 KD코퍼레이션을 현대 측에 부탁한 것도 공익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뿐만 아니라 차은택에게 KT의 광고를 몰아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 이것도 공적 사업이라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담화 역시 첫 번째나 두 번째 했던 담화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임기 단축'에 관한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 혹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임기 단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거취와 개헌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국회에 넘긴 것은 지금의 정치 상황상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든, 아니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협상을 하든 어떤 경우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탄핵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여부를 국회에 맡김으로써, 발의가 예정돼 있는 이른바 '탄핵 연대' 진영을 흐트러뜨리려는 고도의 전략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친박들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 발의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박 중 일부가 이런 주장에 동조한다면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만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더 이상 탄핵 연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주에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여론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즉, 국정조사 청문회는 TV를 통해 생중계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비박들도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생각해 탄핵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40여 일간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책임은 이제부터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즉 3차 대국민 담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의 공백과 파행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담화 이후부터는 국회가 국정 공백의 주범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상당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그 이후의 정치 일정을 국회에 맡겼어야 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끝까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그게 걱정이다.

오늘의 인물 11월 30일 윈스턴 처칠

나치로부터 영국과 세계를 지킨 불굴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1874.11.30~1965.1.24)은 독일 나치의 광풍으로부터 영국과 세계를 지킨 지도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이 없었다면 세계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을 개시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에 영국은 1940년 초당파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일찍이 히틀러의 야망을 경고했던 처칠을 총리에 앉혔다.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 때문에 적이 많았지만 전시라는 비상상황을 그보다 더 잘 이끌어갈 사람도 없었다.

당시 프랑스가 독일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영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독일 공군이 연일 런던을 공습하는데도 처칠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영국 본토 항공전을 진두지휘하며 '피와 땀과 눈물'로 유명한 라디오 연설로 국민의 사기를 높였다. 히틀러가 영국에 화평을 제의했지만 처칠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 고립주의인 먼로주의가 대세였던 미국을 설득해 1941년 3월 2차 세계대전 승리의 계기가 된 무기대여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미국 방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맹국에 무기와 각종 물자를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미국의 물량 공세로 영국과 옛소련 등은 독일에 맞설 전력을 확보했다.

처칠은 종전 이후 총선에서 패배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소련의 공산화 위협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 변모했다. 그가 1946년 미국 미주리 주 웨스트민스터대학 연설에서 언급한 '철의 장막'은 20세기 냉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1953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편 처칠은 영국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전쟁 중 경제학자인 W.H.베버리지에게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1942년 나온 결과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다.

배준호 국제부 차장 baejh94@

카드로 보는 세상



'겟꿀러'라는 말 아시나요? 'Get+꿀+er(~하는 사람)'의 조합어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꿀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죠. 값비싼 피규어를 모으거나, 몇 시간을 기다려 새로 나온 햄버거를 먹는 이들을 가리키는 식입니다. 이는 2017년 20대에서 떠오를 전망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라이프 경향이죠. 이외에 20대의 트렌드로 무엇이 있을까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KrnTUv

온라인 와글와글



태극기도 제대로 못 그리는 교육부 "기본 이하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홍보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뉴스에 잘못된 태극기 그림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홍보 그림에 태극기의 괘인 '감'과 '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그림은 '잘 만든 역사교과서 이야기'라는 카드뉴스의 일부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해당 카드뉴스를 삭제하고 "외부 업체에 의뢰해 카드뉴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감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네티즌은 "교육부가 기본 이하네. 정말 창피하다!", "초등학생도 태극기를 정확히 그리는데… 한심한 교육부", "분명히 확인 절차가 있었을 텐데. 태극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교육부에 한 명도 없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 현대백화점

H by H
유러피안 감성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함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힐러리 패배의 교훈

트럼프 당선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떠다니던 유머 중 하나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역시나 여성은 별수 없구나'를 확인해 줌으로써 트럼프 당선에 일조했다." 어처구니없는 말이지만, 트럼프 당선보다 힐러리 패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던 국내 페미니스트들의 첫 반응은 '흑인은 되지만 여성은 안 되는구나'였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참정권을 인정받은 해가 1870년이었던 반면, 여성은 치열한 투쟁 끝에 19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역사가 다시금 상기되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한데 이번 힐러리의 패배 속엔 여성이 마지막 유리천장을 뚫지 못했다는 사실 이상의 교훈이 담겨 있다. 물론 힐러리가 여성이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다음의 글은 이 사실을 풍자적으로 흥미진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 마약 중독자처럼 코를 킁킁거리는 여성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뿐입니까? 3명의 남자와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둔 여성, 결혼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불륜을 저지른 여성, 수차례 파산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여성, 수천 명의 가족이 보금자리를 잃은 채 거리에 나앉게 된 위기를 일으킨 주범인 여성, 이런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있네요. 지금까지 공직에 오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여성!"

이 글은 '트럼프'라고 쓰였던 곳에 '여성'을 대입한 글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런 여성이 대통령 후보에 지명될 가능성은 0%지만, 남성인 트럼프는 당당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현실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후보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힐러리의 패배가 주는 진정한 교훈은 여성이란 사회적 소수 집단이 주류가 주도해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류 집단엔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8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확고한 비전과 유권자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이끌어낸 탁월한 도덕성을 보여줌으로써 당당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반면 힐러리는 그녀만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국무장관으로서의 경륜은 이메일 스캔들로 이어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낙인이 되었고, 강연 시 천문학적 몸값을 받았던 유능함은 대중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일찍이 퍼스트레이디를 거쳐 국무장관에 오르면서 쌓아온 인지도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란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신선함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힐러리의 실패가 곧 여성의 실패로 인식된다는 사실도 귀중한 교훈이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주관적 객관화(subjective objectification)'라 한다. 만일 트럼프가 실패했다면 그건 트럼프 개인의 문제이지 남성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지만, 오바마가 실패했었더라면 그건 흑인 집단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힐러리의 경우, 힐러리가 여성을 대변하는 대표 선수가 되어 마치 여성은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엔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오랜 기간 여성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배경도 '주관적 객관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일원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더 '남성적' 행동을 하는 '독종여성'들이 많다거나, 여성 정치가 중엔 남성 중심의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돌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은 익숙한 풍경이다.

결국 힐러리의 패배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란 사실보다 '어떤 여성'이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우쳐 주었다는 데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제 '어떤'의 자리를 진정 '어떠한 덕목'으로 채워야 할지 여성 모두의 성찰이 깊어져야 할 것 같다.

객석

박 민 영 유닉스전자 상품기획마케팅팀 팀장



겨울만 되면 메두사 되는 그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머리를 빗지 못하는 소녀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머리를 빗을 때 생기는 작은 마찰에 따른 전기가 쇼크를 일으키게 하는 '머리빗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이다. 그래서 '빠직'거리는 정전기가 더 무섭게 느껴진다. 특히 잘 정돈한 머리카락이 한순간 사방으로 뻗기 시작하면 절망적이다. 메두사가 따로 없다. 머리에 약간의 물을 바르거나 미스트를 동원해 잠재워 보지만, 수분이 날아가면 다시금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을 기미를 보인다. 이 기분 나쁜 모발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모발 정전기는 모발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모발을 손상하고 약하게 만든다. 심할 경우 탈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빗을 고를 때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나무 또는 고무로 만든 빗이 좋다.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되, 샴푸 후에는 반드시 린스나 팩을 통해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수건으로 간단하게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에센스를 발라 보습막을 씌워 주는 것이 좋다. 휴대용 모발 미스트나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발라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머리를 제대로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모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 건조가 좋다고 하지만, 장시간 습기가 두피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비듬, 뾰루지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어를 이용해 빠르게 건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두피와 모발 건강을 망치는 모발 정전기. 간단한 생활습관이라도 꼼꼼하게 지켜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내야 한다.

기자수첩

전 효 점 산업2부/gradually@



정치 외풍 휩싸인 스타트업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꼭 3~4년마다 경영에 위기가 찾아와 죽다가 살아났다."

얼마 전 만난 벤처 1세대 경영인 S 씨가 들려준 칠전팔기의 경영사는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이었다. 그는 다행히 2012년도를 무사히 넘겼지만 그의 '주기설'에 따르면 2016년 즈음 역풍이 불게 돼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최순실발 외풍에 1748억여 원에 이르는 내년도 문체부의 예산, 소위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삭감됐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이 줄줄이 깎여 관련된 스타트업의 창업과 연구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창조경제' 브랜드의 혜택을 받은 점 때문에 스타트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거나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낮추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업계가 큰 폭으로 요동하는 것은 S 씨와 같은 노련한 기업인이 과거에도 반복해서 경험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이다. 정치적 지원의 안정성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이들의 노력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평가 시스템과 민간 투자는 최대한 유지돼야 한다.

S 씨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자 돈을 잃은 사람들은 벤처기업가의 잘못을 책망했다. "며 "잘못은 벤처를 대상으로 돈놀이하던 사람들과 이를 부추긴 정부에 있는데, '다 똑같이 나쁜 놈'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퍼져 사업이 여러모로 힘들었었다"고 돌이켰다. 그의 '주기설'은 틀리지 않았더라도, 이번 '주기'에는 외풍을 방비할 바람막이가 견디길 바랄 뿐이다.

전민정의 인사이트

정치경제부 차장

청와대의 진실게임

"그것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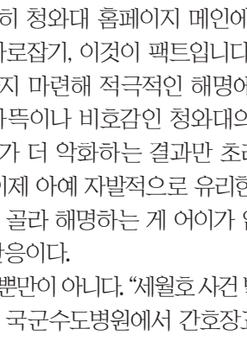
국민은 알고 싶은 것투성이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끊임없이 엮어져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하다.

29일 갑작스레 이뤄졌던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역시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당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해할 수 없는 '선 긋기'만 계속됐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반복된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만 일관할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차 대국민담화 때 자신이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 비난을 샀음에도 이번 대국민담화문 발표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어느새 '질문도 못 하는 무능한 기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어김없이 질문을 원천차단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또 한 번 공분하며 상실감에 빠졌다. 참다 못한 몇몇 기자들이 "다만, 몇 개라도 질문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퇴장하려는 대통령에게 "최순실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다.

청와대 측은 조만간 박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말로 진정시켰지만, 그 말을 믿는 기자들은 없어 보인다. 설령 그런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동문서답'이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이미 국민들은 '골라서' 해명하는 청와대의 태도에 지쳐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기 일쑤였다. 예컨대 얼마 전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의혹과 관련된 의약품 구입에 대해 의무실장이 상당히 긴 참고자료까지 배포하며 장황한 해명에 나섰지만, 'CJ 텔레토비 제작진 성향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입을 꾹 다물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에 '오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 코너까지 마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가뜩이나 비호감인 청와대의 이미지가 더 악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제 아예 자발적으로 유리한 것들만 골라 해명하는 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출장을 갔다"는 데 대한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청와대 측은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대 출입 기록이 없다"는 오보에 대한 변명만 중언부언할 뿐이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 선언'을 했지만, 청와대와 국민 간의 진실게임은 쉽게 끝날 거 같지 않아 안타깝다.

puri21@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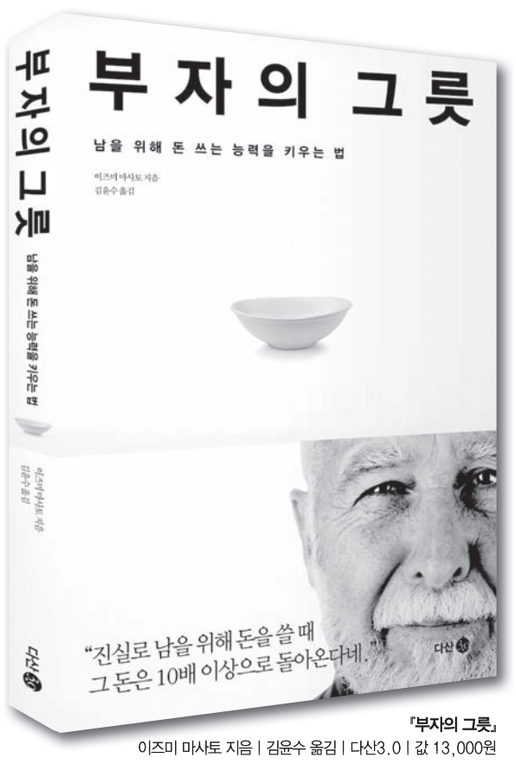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 정책사회부 (02)799-2663 |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 산업1부 (02)799-2664 |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순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CSR

기업은 사회 위에 존립한다. 더이상 이윤만을 좇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이 장기적인 이익과 미래가치를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실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국민은행은 학업을 포기한 저소득층에 교육 멘토링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와줬다. 삼성화재는 설계사들이 기금을 적립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산업은행은 회장이 직접 나서 김장을 담그고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그밖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저마다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지역과 이웃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한다.



신한은행

실제 은행과 똑같은 금융교육센터서 청소년·북한이탈민에 인생설계 지원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 학교인 여명학교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금융의 본업을 통한 따뜻한 금융의 실천을 위해 '상생공존, 문화나눔, 환경지향'의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와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의 금융교육 전용 공간인 신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광화문 캠퍼스를 개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금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경제 및 금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의 교육기부 대상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대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청소년 진로 직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해 금융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통해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통문화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문화재 한지킴이' 협약을 맺어 국보1호 숭례문 지킴이로 활동을 실시했다.

더불어 문화재보존 봉사단을 구성해 전국 곳곳에 있는 문화재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 문화재 지킴이 우수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우수 협력자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엄선해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꿈 같은 하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개념의 기업 메세나 활동으로 2008년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부문별 수상자에게 1600만 원의 장학금과 해외 유명 음악학교 단기 연수 특전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B 국민은행

"KB가 찾아준 나의 꿈, 다른 이에게" 대학생 학습멘토링으로 선순환 나눔



지난 7월 열린 2016년 하반기 'KB스타비(飛) 청소년 꿈틔움학습멘토링' 발대식에서 대학생 멘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이은지(대구한의대 4학년) 양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기업이 후원하는 '학습멘토링'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꿈은 달라졌다.

이 양은 멘토가 열어준 가능성과 희망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까지 가지게 됐고,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진학한 후 다른 아이들의 학습 멘토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비(飛) 꿈틔움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KB스타비(飛) 꿈틔움학습 멘토링은 대학생 봉사자를 구성해 전국 45개 지역아동센터, 3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년 'KB국민은행 희망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부모 없이 목표를 잃은 아이들에게 학업과 꿈을 가르쳐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는 전국 1959명이며, 이들을 위해 1080여 명의 대학생 봉사단이 따뜻한 뜻을 함께하고 있다.

KB스타비(飛) 꿈틔움학습 멘토링은 대상 아동의 학습 수준에 따라 체계화된 학습 지원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 대 5 학습과 학습지 지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를 돕고 있다.

대학생 봉사단은 전국 45개 지역아동센터 인근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 재(휴)학생 중에서 선발돼 6개월간 활동을 펼친다. 국민은행은 대학생 봉사단들을 위해 장학증서와 장학금, 학습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억4900여만 원을 기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은지 양과 같이 KB스타비(飛) 꿈틔움학습 멘토링의 수혜자로서 도움을 받았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후 대학생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멘티가 멘토가 되는 나눔의 선순환 사례를 보여주며 희망의 징검다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9년째 김장 나누고, 어르신에 말벗 봉사 쪽방촌 벽화 그리고, 아이들과 자연탐방



KDB산업은행은 지난 8일~9일 서울 여의도 본점 KDB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 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서울시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김장용 배추,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손수 김장을 진행,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산업은행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여의도 본점 KDB공원에서 이동걸 회장 및 임직원, 임원 부인회 그리고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행사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빈곤 가정과 사회복지 시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은은 1만25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서울시 25개구의 소외계층 1100가구, 홀트아동복지회, 민들레국수집 등 사회복지시설 20여 개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산행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결연 복지시설인 서울 성로원 어린이들과 대부도 구봉도 해솔길을 3시간 정도 걷는 트레킹을 실시했다.

산업은행 자원봉사단 직원들과 서울성로원 어린이와 교사 등 40여 명이 해솔길을 함께 걸으면서, 야외활동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탐방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산업은행은 서울성로원과 1996년에 결연을 맺고 지난 20여 년간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해왔다.

또한 산업은행 미술부 동호회와 자원봉사자들은 지난달 기존의 어두운 동네 분위기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서울 영등포 문래동 쪽방촌 마을 입구에서 벽화 그리기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쪽방촌 독거 어르신 방문과 치매어르신 말벗되기 등 사랑나누기 봉사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직원모금 성금전달 등 다양한 지역사랑 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年 1000억… 5년째 사회공헌 '으뜸'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경섭 행장(가운데)을 비롯한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이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교육지원과 문화예술, 지역축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국 지역 단위로 조직된 임직원 봉사단 '행복채움 봉사단'은 지난해 4700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펼쳤고, 참여 인원은 10만9000명에 달했다. NH행복채움회, NH농협카드봉사단, 성남사랑농협 봉사단 등 전국 157개 시·군별로 조직된 농협은행 행복채움봉사단은 농협은행이 있는 곳이라면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한다.

농촌일손돕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용품 보내기, 사랑의 쌀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무료급식 봉사, 외국인 농업근로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무료 금융교육인 '행복채움금융교실'을 통해 1327명의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 전도사들이 금융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어온 '농촌어르신 말벗 서비스'도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고, 불편 사항을 확인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린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400여 명의 말벗천사들이 전화를 걸어 생활 정보를 전달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준다.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어르신을 찾아 위로잔치를 열고,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으로 이불, 내의 등 선물도 전달하고 있다.

또 농협은행은 연평균 1000억 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지출하며 2011년부터 5년째 사회공헌 지출 은행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571억 원 △학술·교육 분야 202억 원 △메세나·체육 분야 102억 원 △환경 분야 2억 원 △글로벌 분야 1억 원 △서민금융 부문 136억 원을 지출했다.

삼성카드 SAMSUNG

"이곳에 쓰였으면…" 고객 부름에 달려가는 '열린나눔'



삼성카드 직원과 고객들이 소아암환아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열린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고객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구성해 백혈병 어린이 등 어려운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사회공헌 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고객을 참여시키는 '열린나눔'이 있다.

삼성카드 열린나눔은 기존 기업이 주도적으로 인력이나 기부금을 수혜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사회공헌에서 탈피한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사업 제안에서부터 수혜처 선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을 참여시킨다.

삼성카드는 열린나눔의 일환으로 삼성카드 포인트와 카드결제를 통해 매달 백혈병 어린이, 장애아동, 결식아동, 유기동물 보호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모금, 지원하고 있다.

고객이 제안한 사회공헌 활동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자금도 지원된다.

삼성카드는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제안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체화 과정을 거쳐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연계된다.

열린나눔은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 고객, 임직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눔 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들은 데이터화돼, 현재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삼성카드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열린나눔은 총 1571여 개의 사회공헌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총 54만 명 고객이 참여해 직접 제안을 추천하고 투표로 해당 사업들이 선정됐다.

현재까지 교육, 아동, 여성, 지역사회, 문화예술, 가족, 일자리 등 다양한 테마로 총 141개의 사업이 실현됐다. 삼성카드는 여러 NGO·복지단체들과 함께 소외 이웃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삼성생명

출생~세살까지 양육 서비스 '세살마을'
청소년 북 두드리며 인성형성 '드럼클럽'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제5회 사람, 사랑 드럼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사회공헌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사랑 나눔경영'이다. 이 가운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사회공헌'은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이다.

먼저 만혼 인구가 증가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해 서울시, 가천대와 함께 '세살마을 사업'을 2011년에 출범했다. 세살마을 사업은 출생 전부터 세 살까지 체계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산부 교육은 '아기 뇌 발달, 임산부 건강, 아기 용품 만들기', 조부모 교육은 '가족 관계 개선, 양육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생 이후 백일 전후로는 육아 전문가와 보험설계사(FC)가 가정을 방문해 탄생 축시, 육아용품, 아기천사보험 등 축하 선물과 육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사회공헌 프로그램 '세로토닌 드럼클럽'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타악기인 북을 두드림으로써 정서 순화와 올바른 인성 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총 220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생명은 보건복지부와 2012년 2월 '질병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및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층 여자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로즈데이 포토 이벤트, SNS 디지털 캠페인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환경단체와 협약을 맺고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린봉사대'를 운영해 전국의 숲을 대상으로 생태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분야에서도 2017년까지 중국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최대 2500만 위안을 들여 전동 휠체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계약 수수료 500원씩 적립 누적액 51억
241곳 장애인 가정·시설 생활환경 개선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들이 장애인 주거환경 지원사업인 '500원의 희망선물' 10주년을 맞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500원의 희망선물'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 활동은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손잡고, 장기보험 계약 수수료 중 건당 500원의 기금을 적립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2005년 6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여성이 주방을 이용하지 못해 복지관 도시락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에 설계사들이 "주방을 고쳐주자"며 나선 데서 시작됐다.

2016년 9월 기준, 1만4000여 명의 설계사들이 기금 적립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으로 모금된 약 51억 원으로 총 241곳의 장애인 가정 및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장애인 주거환경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거환경은 경사로를 도입하거나 문턱을 없애 이동권을 확보했다. 또한 화장실과 침실 등에 보조손잡이를 설치해 낙상 위험도 줄였다. 싱크대나 책상 등 가구 높이를 장애인에 맞춰 제작하는 등 기부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필요에 맞춘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이 나온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산림청,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삼성화재 드림스쿨'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서울 면목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25개의 학교에 학교숲이 조성됐다. 지난 3일 부산 운산초등학교에 26호 학교숲이 조성됐다.

학교숲 조성 예산은 삼성화재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적립해 모은 사회공헌 기금 '드림펀드'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한화생명

여직원·FP 주축 '맘스케어 봉사단'
보육원 방문 음악교실 등 나눔활동



한화생명 맘스케어 봉사단은 매달 보육원을 방문해 음악교실, 종이접기, 점토놀이 등 맞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여성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가 주축이 된 '맘스케어 봉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맘스케어 봉사단은 2014년 30여 명의 여성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다. 그러나 봉사의 취지에 공감한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65명, 올해 116명으로 확대됐다.

맘스케어 봉사단은 매달 보육원인 '혜심원', '명진들꽃사랑마을', '무등육아원 꿈뜨락'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봉사단은 아이들의 정서 치료와 음악교실, 종이접기, 점토놀이 등의 맞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엔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신금순 한화생명 부평지역단 계양지점장은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반기고, 봉사자들도 아이들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한화생명은 맘스케어 봉사단과 같이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화생명은 2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한화생명 봉사단도 운영 중이다. 봉사단에 참여한 임직원은 매년 1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또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랑모아 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 역시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매월 직원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사회공헌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단 '한화해피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분야와 '사랑의 집짓기'(베트남), '기초교육지원'(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박현주재단, 장학사업 통해 인재육성
저소득층·도서벽지 청소년 도서 선물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인재육성, 사회복지, 나눔문화 등 3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을 사회공헌 미션으로 내걸고 있다.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인재 육성, 사회복지, 나눔 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인재 육성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국내 장학생, 해외 교환 장학생,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재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외 장학사업 6123명, 상하이 글로벌 체험 1만3126명, 경제·진로교육 11만494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 '글로벌 문화체험단' 등을 운영 중이다.

나눔 문화를 통해선 '희망듬뿍 도서지원'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도서벽지의 아동·청소년에게 맞춤식 도서를 선물하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기존의 도서관이나 시설에 기증된 도서처럼 '공유'가 아닌 신청자가 나만의 책을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봉사', 'FC사랑실천기부 전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독거노인 사랑잇는 전화', '장애인 동반산행', '소아암 환아를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제작·배포'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상녕 미래에셋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보험업의 본질에 입각해 자긍심을 갖고 지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전 구성원이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기업문화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자매결연 마을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
축사 안전점검·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이윤배 대표와 헤아림 봉사단 40여 명이 경기도 이천시 율면 도달미 마을을 방문해 수확기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사진제공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농촌, 손해보험, 지역사회 등 3가지 사회공헌 테마를 선정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사내 봉사단체인 '헤아림봉사단'이 있다.

농협손보는 우선 농촌사랑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기도 강화군 연촌마을, 이천시 도달미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4~5회에 걸쳐 농번기 일손돕기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구입, 농가주택 개보수, 임직원 가족의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협손보는 풍수해, 화재예방 등 손해보험사의 본분에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연계한 농촌지역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육, 축사 500여 실을 대상으로 하는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 경찰청과 함께하는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등 농협손해보험만의 특화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과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은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축사 안전점검 캠페인은 전기점검을 통한 화재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은 안전수칙 교육과 함께 야광 스티커, 안전삼각대 등을 배부해 교통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농협손보는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은평구 소재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종로구 소재 양로원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환경 미화, 배식 등의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서대문구청과 함께 서대문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농산물 나누기로 도농상생(都農相生)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매달 백범공원 쓰레기 줍고 나무 심고
복지관 아이들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 사내 봉사단원이 남산 백범공원에서 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 돌보미 행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기업과 사회가 공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선 롯데손보는 사내 봉사단인 샤롯데봉사단을 통해 남산 백범공원 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다.

남산 백범공원 돌보미 활동은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인 남산공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가꾸고, 임직원의 환경 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하는 환경봉사 활동이다.

롯데손보는 이 봉사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와 공원 돌보미 활동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봉사단은 남산 백범공원을 매월 1회 방문해 공원 내 수목 식수 활동, 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공원 시설물 파손관리 등 환경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백범공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롯데손보는 복지관 아동들을 초청해 각종 문화체험 활동들을 제공한다. 롯데손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격월로 1회 복지관 아동을 초청해 '사랑 Dream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 Dream 나눔활동'은 롯데손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협약, 복지관 아동을 초청해 롯데손보 샤롯데봉사단원과 함께 문화체험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롯데손보는 샤롯데봉사단을 통해 헌혈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롯데손보는 대한적십자사의 협조하에 본사에서 연간 2회에 걸쳐 임직원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헌혈 후 해당 헌혈증은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봉사활동이 다양한 계층,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의 메시지, 신뢰를 낚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올해,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투데이는 '2016년 이투데이 광고대상'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전달한 광고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2016년 광고대상 명예의 종합대상 수상작으로 SK㈜의 '해내겠습니다. OK! SK'를 선정했습니다. 또 기업PR대상은 SK텔레콤의 '연결 그것은 해결', 고객만족대상은 SK브로드밴드의 '여섯번째 수상 소감'를 각각 뽑았습니다. 본상부분 금상은 기아자동차 '더 뉴 모하비', 은상 코웨이'라이프 케어', 동상은 신한카드 '신한카드 FAN(판)'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된 부문별 최우수상은 △기업PR:동부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식음료:롯데칠성음료'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계:코이컴퍼니 '그로바나'가 차지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올해 만들어진 수많은 광고 작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투데이 광고대상에 참여해주신 광고주와 광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6 이투데이 광고대상 수상작

	상명	업체	작품명
대상 (3개사)	종합대상	SK(주)	해내겠습니다 OK! SK 캠페인
	기업PR대상	SK텔레콤	연결 그것은 해결
	고객만족대상	SK브로드밴드	여섯 번째 수상소감
본상 (3개사)	금상	기아자동차	모하비
	은상	코웨이	라이프 케어
	동상	신한카드	My FANtastic World
부문별 최우수상 (5개사)	기업PR	동부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델몬트파머스주스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윤조에센스
	건설	현대산업개발	신촌숲 아이파크
	시계	코이컴퍼니	클래식 드레스 워치



심사평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올해 화두 '4차 산업혁명' 미래 성장동력 높은 점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종착역을 모른 채 달려가는 열차처럼 제어력을 잃은 채 혼란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교육 등 중요한 현안들은 좌표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득은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일상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제4부의 권력이라 일컬어졌던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 버리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재정을 뒷받침해 온 광고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이투데이가 2011년부터 시작한 광고대상은 새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고대상은 광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자들에게도 광고의 의미를 제고시킴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올해의 최대 화두인 만큼 이번 광고대상 심사기준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담아낸 내용과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상분야 중 종합대상은 이를 잘 표현한 SK(주)의 광고 5편을 선정했습니다. SK(주)는 IC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올림픽을 소재로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광고입니다. 고객만족대상은 SK브로드밴드의 '여섯번째 수상소감'에 돌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자사의 국가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축약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업PR대상은 SK텔레콤의 '연결 그것은 해결' 광고입니다. 사회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돼 가는 상황과 이에 대한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상인 금상은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입니다.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사진과 함께 훌륭하게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종합대상

(주)SK

예술 작품과의 접목…'네거티브 일러스트'로 두가지 의미 담아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광고 제작 차별화 기법 중 하나는 '예술 작품과의 접목'입니다. 브랜드와 예술 작품과의 연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SK의 'OK! SK' 캠페인도 '비주얼 측면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이스라엘 출신 유명 네거티브 일러스트 작가인 노마 바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일러스트 작품의 배경 속에 숨겨진 상징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는 '네거티브 일러스트' 기법을 국내 최초로 광고에 접목했습니다.



이창훈
브랜드담당

'해내겠습니다. OK! SK'라는 슬로건으로 전개된 이번 캠페인은 SK의 핵심 성장 사업인 △반도체(소재) △바이오제약 △에너지 신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소재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SK의 의지와 노력을 담았습니다.

또 △물음표 △태극기 △쌍안경 △문 등을 오브제로,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이미지에 '중의적 의미'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정색·흰색·빨간색 등 3가지 원색을 캠페인의 색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적인 기업 PR 캠페인과는 다른 파격적인 시도로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SK는 국내를 대표하는 장수 캠페인 중 하나인 'OK! SK' 캠페인을 통해 기업 PR 캠페인과 신문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영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상의 수상의 영광을 주신 이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PR대상

SK텔레콤

'연결의 기술'로 전하는 행복 공유…'초연결 사회' 리딩 기업 강조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이미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재하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전혀 관계 없었던 두 대상이 IoT 기술을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우리가 가진 '연결의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에 없던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과 기쁨을 공유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용철
PR실장

이러한 배경에서 SK텔레콤은 2015년을 시작으로 '연결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연결의 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투데이 기업PR대상을 수상한 '연결 그것은 해결' 편은 연결의 시대 속 SK텔레콤의 의지와 비전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가전제품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을 라인 드로잉으로 연결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그 누구보다 더 빠른 연결, 더 넓은 연결을 만들어 온 것처럼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초연결 사회를 리드하는 대표 기업으로서의 노력을 더 하고, 그 연결로서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되고 사람들 누구나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혁신과 동행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SK텔레콤에 수상의 영광을 주신 이투데이 관계자 여러분과 광고대상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만족대상

SK브로드밴드

국가고객만족도 1위…'홈앤미디어' 선도업체로 고객가치 추구



먼저, 뜻깊은 수상의 영광을 주신 이투데이 광고대상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함께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새로운 고객가치를 추구하는 홈앤미디어(Home & Media) 세상의 리더로서 고객의 행복한 삶과 컨버전스 시대의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1999년 초고속인터넷 ADSL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06년 국내 최초로 주문형비디오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IPTV 기준 UHD 서비스 국내 최초 상용화, 2016년 10월 현재 국내 최다 UHD 실시간 채널 등으로 기술과 서비스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안원규
마케팅기획본부장

지속적인 기술혁신, 서비스 선도와 고객가치 혁신을 통해 SK브로드밴드는 올해에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IPTV 및 초고속인터넷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KS-SQI)와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 IPTV 부문 1위로 진정으로 고객에게 인정받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광고작품은 국가고객만족도 수상 사실을 소재로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감사의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기획·제작했습니다.

광고는 국가고객만족도 1위 수상의 원동력이 SK브로드밴드를 사랑해 준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V 특유의 웅장함 전달

금상
기아자동차





서보원
국내마케팅 이사

이투데이 광고 대상에서 기아자동차 '더 뉴 모하비'가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더 뉴 모하비'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2월 출시한 '더 뉴 모하비'는 정통 프레임 바디의 뛰어난 안전성, 최고 출력 260마력의 압도적 성능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로6' 기준을 충족하며 외관을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 최신 사양과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40~50대 남성들 사이에 확고한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사전 계약만 4500대를 넘길 정도로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 가치와 인기는 이미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더 뉴 모하비' 인기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서 고객들의 브랜드 기대 가치를 충족시키자 했던 기아자동차의 노력과 신념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더 뉴 모하비' 광고는 이러한 압도적 상품성과 최고를 뜻하는 '앱솔루트(Absolute)'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전히 등정한 엄홍길 대장이 출연해 '더 큰 세상을 지킵니다'라는 메시지로 진정한 SUV가 가져야 할 가치를 웅장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고객가치 혁신으로 고객들에게 항상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아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높이는 습관은?

은상
코웨이





박용주
마케팅본부장

코웨이의 '라이프 케어, 코웨이' 캠페인이 이투데이 광고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웨이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하는 일을 넘어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워터 케어, 에어 케어, 바디 케어, 슬립 케어의 라이프 케어를 통해 고객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 비전인 '코웨이=더 라이프 케어 컴퍼니(The life Care Company)'를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고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더 라이프 케어 컴퍼니로서 코웨이가 소비자와 교감하고픈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약속을 전달하고자 2016년 '라이프 케어, 코웨이' 캠페인을 두 편의 시리즈물로 기획해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집안의 모든 환경이 서로 연결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이라는 지구가 최적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케어하는 '집이라는 지구편'과 고객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살펴보고 분석해서 고객에게 맞춰진 케어를 제공하겠다는 '가족이라는 인류편'을 통해 코웨이가 지향하는 라이프 케어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코웨이는 기본적이지만 제대로 누려야 할 깨끗한 물과 공기, 편안한 수면을 위한 맞춤형 케어솔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세상의 판을 바꾸다

동상
신한카드





장재영
브랜드기획팀장

신한카드에 이러한 뜻 깊은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결같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과 이번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6년, 신한카드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을 통해 생활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더리스(Borderless) 철학'을 새롭게 내세웠습니다. 2200만 고객을 보유한 1등 카드사로서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보더리스 철학에 기반한 첫 결과물로 나온 것이 '신한카드 FAN(판)'입니다. 지난 4월 '세상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선보인 신한카드 FAN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손쉬운 결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 플랫폼입니다.

'금융과 네트워크(Finance And Network)' 영문 이니셜을 딴 조어인 FAN은 간편결제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이 있는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한번에 누릴 수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과 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판타스틱한 판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이번 인쇄 광고는 FAN의 탄생부터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팩트 있는 간결한 카피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14년째 이어온 '한 사람을 위한 금융' 인간미 더해

기업PR 최우수상
동부그룹





박영수
광고팀 부장

하나의 슬로건을 14년 동안 일관성 있게 사용해 온 광고가 있습니다. 14년이면 일반적인 광고의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긴 시간입니다. 광고에 사용되는 브랜드 슬로건도 14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금융네트워크는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저축은행 등 동부그룹 6개 금융 계열사들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6개 금융 계열사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동부그룹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로 확장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꾸준하게 금융 네트워크 광고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동부의 마음가짐과 6개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편익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적이고 친근하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생각하는 금융회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슬로건을 14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동부금융네트워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하고 일관된 동부금융네트워크 광고 캠페인은 고객에게 다소 낯설었던 '동부금융네트워크' 6개 금융회사의 존재감과 종합금융 그룹으로서 동부의 위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금융네트워크 광고 캠페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주는 금융전문 기업'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동부금융 고유의 인간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농장에서 바로 짜서 즐기는 오렌지 주스의 신선함

식음료 최우수상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우선 '델몬트 파머스 주스 바'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번 '델몬트 파머스 주스 바' 광고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2016 이투데이 광고대상'을 주신 이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롯데칠성음료는 물이나 설탕은 물론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과일 그대로만 맛을 낸 프리미엄 착즙 주스인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를 신규 발매했습니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는 플로리다 산 오렌지 10.3개, 스페인 산 자몽 7.8개(750㎖ PET 기준)를 그대로 착즙해 건강한 주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발매한 제품입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K-BPI) 조사 주스 부문에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델몬트 브랜드를 걸고 내놓은 프리미엄 주스이기도 합니다.

이번 광고는 이러한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의 제품 속성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기획·제작됐습니다.

'파머스 주스바'라는 네이밍이 말하듯 농장에서 바로 짜서 즐기는 듯한 과일의 신선함과 No.1 주스 브랜드인 '델몬트'의 정통성을 표현하고자 농부가 직접 오렌지를 기르는 장면을 3D로 구현했습니다. 착즙된 과일이 그대로 제품에 담기는 모습도 보여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과일 그대로를 짜서 담았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고객 분들의 숨은 니즈를 파악해 보다 좋은 제품으로 일상 속에 즐거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방 에센스와 전통 소재 호박과의 감각적인 만남

화장품 최우수상
아모레퍼시픽





이희복 상무

'설화수 윤조에센스'에 보내주신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아시아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진귀한 원료와 남다른 처방을 근간으로 최적의 피부 효능을 구현하고, 외면의 문제에서 그 근본 원인까지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홀리스틱 뷰티 브랜드입니다.

7세 주기론에 기인한 생애 단계별 라이프스타일과 신체적 변화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설화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전 세계 11여 개국에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1997년 처음 선보인 한방 부스팅 세럼 '윤조에센스'는 명실상부 설화수의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전 세계 설화수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제품 출시 당시 스킨케어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의 혁신적인 개념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여성들의 스킨케어 습관을 단숨에 바꿔버릴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제품 출시 17년 만인 2014년 1월에는 전 세계 누적판매 2000만 개, 누적금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매년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윤조에센스' 광고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진 우리 전통 소재 호박을 현대작가와의 콜래보레이션(협업)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해 무너진 피부 균형을 맞춰 비할 데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를 선사하는 제품의 효능을 상징화했습니다.

수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설화수 브랜드와 윤조에센스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92년 전통이 흐르는 시간… 클래식 시계의 정수

시계 최우수상
코이컴퍼니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를 수입, 유통하는 코이컴퍼니는 클래식 시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시간은 우리의 전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한 그로바나는 스페셜티스(Ref. 1728.9552) 컬렉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이한 '그로바나'는 스위스 정통 시계 제조사로서 기계식 시계부터 다양한 기능의 쿼츠 시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커플 시계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로바나의 모든 시계는 '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스위스 텐니켄에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41mm 사이즈의 로즈골드 베젤과 인덱스, 핸즈 그리고 크라운이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스트랩과 매치돼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고풍스러운 감성을 담았습니다. 다이얼의 은은한 기요셰 데코 패턴과 정통을 강조한 디자인이 92년 동안 이어져 온 그로바나의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 메이킹 노하우를 보여줍니다.

특히 정교함이 장점인 스위스 론다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크로노그래프(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기능과 빛 반사 방지, 항스크래치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털 유리, 날짜, 30m 방수기능 등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다이얼로 만나볼 수 있는 이 컬렉션은 3년간의 국제 무상보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로바나는 롯데백화점 본점 등 그로바나 취급 백화점과 갤러리아면세점 63점, 동화면세점,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SM면세점 및 전국 그로바나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Market news

정치테마株 변동률 32.2%
코스피시장 평균치 4배 ↑

올해 4월 총선 이후 정치 테마주의 주가 변동률이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평균 주가 변동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정치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주가 변동률은 7.5%, 코스닥 시장은 16.1%였다.

총선 이후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60여 개 종목의 주가가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물산·생명 수혜"

지주사 전환 추진, 주가 전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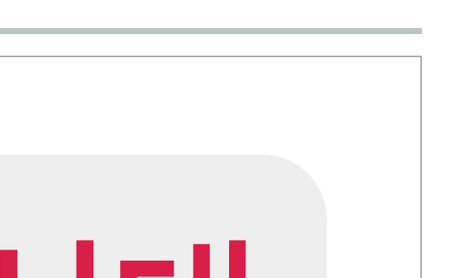
"불확실성 해소… 시장 기대 충족"
인적분할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어
삼성물산 급락했지만 '일시적 조정'
그룹 지배구조 통로 역할에 긍정적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떠돌던 인적분할 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 증권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의 물꼬를 튼 삼성전자의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등 주주가치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최소 6개월에 걸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인적분할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일 발표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그간 시장이 기대했던 바를 충족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처음"이라며 "6개월 정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이를 줄여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시기가 6개월 후로 유보되면서 삼성물산 등 관련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8.63% 급락한 12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수혜 기대 속에 2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지금 당장 인적분할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며 "주가 조정은 일시적인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론적으로 봐도 5~6개월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수순"이라면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수혜를 점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해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통로 역할과 프리미엄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제 분할 시점을 앞두고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시가총액과 그룹 규모가 클수록 규제 충족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합산 시가총액 증가 가능성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지주회사를 크게, 사업회사를 작게 분할할수록 재상장 후 경영권 부담이 최소화되고 합산 시총 증가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바이넥스, 칭화홀딩스 투자 유치
침체빠진 제약·바이오 훈풍 될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장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바이넥스가 대규모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넥스의 중국발 모멘텀이 업계 전반에 훈풍을 몰고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이날 2269억1676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넥스는 중국 칭화홀딩스 산하 동방강태산업그룹으로부터 21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 받게 됐다.

동방강태산업그룹은 홍콩에 위치한 회사로 모회사가 칭화홀딩스다. 칭화홀딩스는 칭화대학교가 자금펀드운영을 위해 설립한 투자지주회사. 국영기업인데다가 시진핑 주석의 모교다.

바이넥스 측은 "중국 바이오 시장은 아직 초기 형태"라며 "이런 형태의 계약은 사실상 최초로 현지 바이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바이넥스의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는 침체기에 빠진 제약·바이오업종에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한미약품 사태로 관련 업종 주가가 부진을 겪었고,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가능성에 중국 진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업종도 이제는 실적과 비용투입 대비 성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강한 달러 시대
달러 투자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앱 다운로드 바로하기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크레온을 검색해 주세요.

연 2.0% 크레온
달러RP 특별판매

· 수익률: 연 2% (세전, 2016.10.01 기준)
· 한도: 개인별 1만$~50만$
· 수익률 적용 기간: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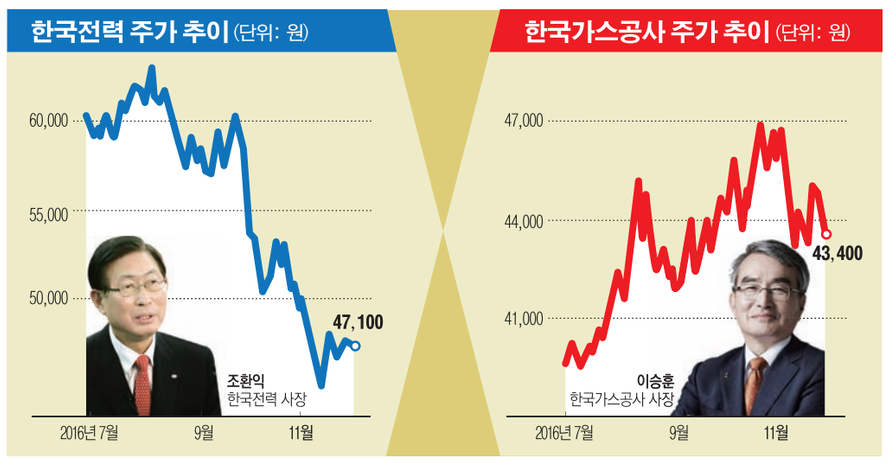
*3개월 이후 또는 중도해지시 수시RP 수익률 적용

고객감동센터 1544-4488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194호
(2016.10.10~2016.11.11)

*USD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됩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 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지급됩니다.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크레온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크레온
by 대신증권



"유가상승 부담에" 힘빠지는 한국전력
"LNG 매출 증가" 탄력받는 가스공사

라이벌 주가

한전, 올해 1분기 사상최대실적 기록
OEPC 감산합의 이후 주가 21% 뚝

가스공사, 2·3분기 2000억 영업손실
유가 반등에 연초대비 20.39% 올라

양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엇갈린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두 회사의 주가를 갈랐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유가상승 부담과 정책 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반면, 가스공사는 유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그간 실적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전력은 올해 내내 호실적 행진을 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3분기에 이를 또 한 번 경신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10조7000억 원을 기록했고, 연간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인 13조44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22.5%에 달한다.

하지만 주가는 정반대 흐름이다. 2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한국전력은 4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초(5만 원) 대비 5.80%, 상반기 말(6만100원) 대비 21.63% 각각 하락했다.

한국전력과 달리 가스공사 주가는 올 내내 오름세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주가는 현재 4만3400원으로 연초(3만6050원) 대비 20.39%, 상반기 말(3만9750원) 대비 9.18% 각각 상승했다. 실적과는 대조적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894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2분기에 64억 원, 3분기에 18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함에 따라 올해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성적이 예상된다.

두 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엇갈린 원인은 국제유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 국제유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올해 상반기 이후로는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는 발전 단가 부담으로 이어져 비용이 커진다. 이와 달리 가스공사는 유가가 오르면 해외에서 개발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경쟁력도 높아진다. 국제유가는 지난 7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이후 줄곧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OPEC의 감산 합의가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유가 반등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가스공사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민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7년부터 유가 50달러 수준에서는 생산량 증가로 흑자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의 경우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것. 다만 지난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누진제 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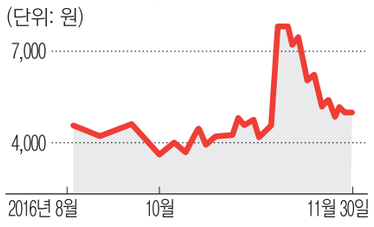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로코조이 유상에 M&A 큰손 원영식 회장 참여

〈더블유투자금융주식형투자조합제9호〉



로코조이 주가 추이
(단위: 원)



에이프로젠 자회사 지베이스·에스맥 등 최대주주로 등극
ABA바이오로직스 공장 생산설비·기자재 구입 임대 검토

에이프로젠 최대주주와 자회사 등이 모바일 게임개발 업체 로코조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특히 인수·합병(M&A) 분야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원영식 회장이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로코조이는 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상자가 기존 ABA바이오로직스 단독에서 ABA바이오로직스 430억 원, 지베이스 170억 원, 에이프로젠의 주주사인 에스맥 150억 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영식 회장이 이끄는 더블유투자금융주식형투자조합제9호가 3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납입일이 12월 23일에서 2017년 1월13일로 연기됐다. 이번 납입일 연기와 관련해 회계감사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한 달 정도 연기된 것이라고 회계업계 측은 설명했다.

이번 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최종 지분율로 ABA바이오로직스 약 24%, 더블유투자금융주식형투자조합제9호 약 17%, 지베이스는 약 9.5%, 에스맥은 약 8.4%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등으로 올라서게 된다.

원래 납입을 하려던 ABA바이오로직스는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이며 에이프로젠의 최대주주인 지베이스 및 주주인 에스맥이 추가된 것이다.

지베이스는 김재섭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김 대표는 지베이스를 통해 지난 9월 에스맥 유상증자에 20억 원을 참여한 바 있으며 에스맥은 에이프로젠에 지난 5월 135억 원을 투자한 주주사이다.

원영식 회장은 2014년부터 W홀딩컴퍼니(구 SH 홀딩스)를 통해 YG 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동원 등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또 와이제이엠게임즈의 유상증자에도 더블유투자금융주식형투자조합 2호를 통해 참여했다.

에이프로젠은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업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국내 3대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꼽히는 에이프로젠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GS071'을 개발해 일본 니찌이꼬제약에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임상 3상을 마친 뒤 시판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9종과 바이오신약 4종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현재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을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ABA바이오로직스가 맡는 구조다.

ABA바이오로직스는 충청북도 오송에 공장을 지어 2018년 말부터 레미케이드, 허셉틴, 리툭산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예정이다. 따라서 ABA바이오로직스가 로코조이의 단독 최대주주가 되면 자연스레 바이오시밀러 생산 법인으로 바뀔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에이프로젠은 로코조이가 ABA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들어갈 생산설비와 연구 기자재를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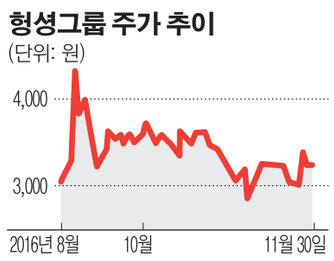
특히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 생산기술이 상장된 경쟁기업들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고효율 세포주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배양기에서 동일한 양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는 "연간 최대 2000kg 내외의 생산 가능한 시설이 에이프로젠은 2000L 바이오리액터 4기가 있으면 되지만 경쟁사는 1만 5000L 바이오리액터 10기가 있어야 한다"며 "경쟁사 대비 더 낮은 가격과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생산 능력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프로젠이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뒤늦게 시작하지만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해외 기관들은 에이프로젠이 가진 바이오시밀러 능력보다 신약 개발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헝성그룹 주가 추이
(단위: 원)



상하이 디즈니 매출 확대
헝성, 3분기 영업익 130억

완구·콘텐츠 기업 헝성그룹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30억7000만 원, 100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매출액은 610억2000만 원이다.

위안화(RMB) 기준 매출액은 3억6320만 위안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781만 위안, 5964만 위안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위안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헝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종속회사였던 헝성애니메이션이 헝성그룹에서 분리되면서 해당 회사의 실적이 연결 기준에서 제외 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상하이 디즈니 등 신규 매출처 확대를 통해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고, 분리된 종속회사로부터 지적재산권(IP)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가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헝성그룹은 최근 수익 증대를 위해 전동·지능 완구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자체브랜드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드론(Drone) 2종을 포함한 9종의 신규 고부가가치 전동 완구 제품을 출시하면서 신규 고객사 확보와 매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최재원 헝성그룹 한국지사장은 "회사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완구·콘텐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 출시 예정인 자체 개발 브랜드가 매출에 반영되면 실적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성그룹은 지난 9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의 15%를 현금배당하기로 공시했다. 헝성그룹이 상하이 디즈니 등 신규매출처를 확대하면서 국내 완구와 콘텐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터닝메카드'로 유명한 손오공은 세계 최대의 완구 기업 마텔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했다.

김우람 기자 hura@

MBK파트너스, 日 골프기업 아코디아 인수

주당 1200엔에 주식 시장 공개 매수
인수가 1.5조원… 국내 PEF 중 최대

MBK파트너스가 일본 골프기업 아코디아의 주식을 시장 공개 매수를 통해 인수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전날 도쿄증시에 아코디아의 시장 거래 주식을 주당 1210엔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다. 매입 하한선은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 4700만3100주(66.7%)다.

아코디아의 주식은 리노투자펀드(9.93%), 아야 노무파(9.98%) 등 일본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들과 아코디아 지분 인수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인수 총액은 7억6000만 달러(8900억 원)로 이날 종가 대비 16.9%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MBK파트너스는 아코디아의 부채 6000억 원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업가치(EV) 기준 초 인수가는 1조5000억 원 규모로 국내 사모펀드(PEF)의 일본 기업 인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중순부터 아코디아 인수를 추진했다. 올해 7월에는 아코디아 주주들과 인수를 협의하다가 이 회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인수가 연기됐다.

골드만삭스가 설립한 아코디아는 일본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도산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을 인수해 왔다. 이 회사는 현재 일본 내 골프장 43개를 소유하고 83개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공시돋보기

이테크건설, 수주 잔고 1조 돌파
도급사업 확대·브랜드 도입 추진

올해 3분기 토건 수주 7.3% 늘어
사업 고정비 보완… 영업익 개선

플랜트·생활환경·터미널·발전에너지 기업 이테크건설의 수주잔고가 작년 말 수주잔고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건산업의 수주액이 늘어나면서 회사 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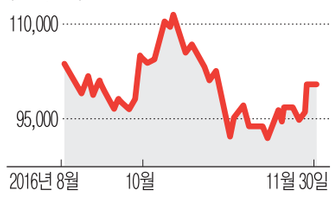
이테크건설은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말 수주잔고가 1조 3630억 원으로 지난해 말 수주잔고 1조1180억 원보다 2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주잔고 구성비율은 플랜트와 토건이 7대 3이다.

회사 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규수주 금액은 8600억 원으로, 신규수주 가운데 토건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테크건설의 토건 사업은 사업 플랜트 관련 설비 수주 물량과 한국토지신탁과 연계한 주택사업 수주 물량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신탁 관련 물량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 토건 사업 부문의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토건사업의 실적개선 및 신규수주 물량 증가로 토건사업의 매출비중은 2014년 17.9%, 2015년 19.3%, 올해 3분기 24.6%로 증가했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2014년 -9.7%, 2015년 -5.4%에서 올해 3분기 7.3%로 크게 개선됐다.

이테크건설 주가 추이
(단위: 원)



김태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수주잔고 가운데 25~30%가량이 토건 사업 부문 수주액으로, 토건 사업부문 수주액 증가로 플랜트 사업부문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고정비가 커버되면서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테크건설은 향후 토건 사업부문의 강화를 위해 주택 도급사업 확대를 위한 영업조직 정비 완료 및 브랜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 호텔 등 비주거시설 및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해 자체 설계인력을 활용한 공장용 건축물 영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맥스로텍, 美 엑천에미리트 'XMini' 독점판매

〈차세대 로봇 공작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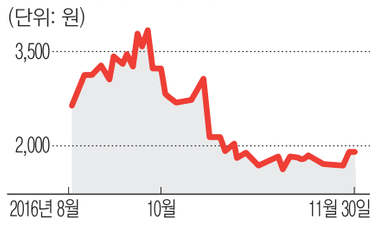
록히드마틴의 조인트벤처 지분 보유
국내 넘어 아시아 국가 판매권 확보

산업자동화용 기계 및 로봇 전문기업 맥스로텍이 록히드마틴의 조인트벤처인 엑천에미리트(Exechon Emirates)와 손잡고 차세대 공작기계 사업에 나선다.

맥스로텍은 아랍에미리트 소재 엑천에미리트와 차세대 로봇 공작기계(PKM) 'XMini'의 국내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엑천에미리트는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PKM 원천특허기술 보유 회사인 텍그랜트(Tecgrant), 인

맥스로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자즈내셔널(Injaz National) 3사가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에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우주항공, 방위사업 및 자동차산업용 PKM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맥스로텍은 현재 텍그랜드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

맥스로텍은 이번 판권 계약을 통해 차세대 로봇 공작기계 'XMini'의 국내 독점 판권은 물론 아시아 복수 국가의 판매권을 확보하게 됐다.

맥스로텍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은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자동화율 제고를 위해 PKM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인트벤처 설립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를 비롯한 해외 다수의 록히드마틴 협력사들이 PKM 수요에 나서면 'XMini'와 함께 맥스로텍이 자체 개발한 PKM의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나이벡, 바이오임플란트 특허 등록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벡은 '지르코니아 결합능을 가지는 펩타이드(Peptide Having Zirconia Binding Affinity)'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르코니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 중 가장 강도가 높고 심미성이 뛰어나 치아를 대신하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광물 중 하나다.

이 특허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기능성 약물을 추가 도입한 펩타이드를 안정하게 고정시켜 약물의 활성을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는 연결 펩타이드에 관한 것이다. 노인의 경우 치아 골량이 부족하거나 골질 저하로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초기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제대로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벡의 특허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플란트 표면에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는 펩타이드에 안정하게 고정될 수 있는 약물을 추가 도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에게 적용해 임플란트 식립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 특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사업인 바이오 임플란트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물로 노인 잇몸뼈·턱뼈의 재생을 위한 활성물질을 실용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바탕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車부품 생산 케이피에프, 동남아 시장 진출

파스너(fastener) 및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케이피에프(KPF)가 베트남 시장 공략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케이피에프는 2010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해 전략적인 투자와 영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현지 매출액 407억 원을 달성하고 손익분기점(BEP)이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매출액 341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했다.

케이피에프는 최근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성(省)의 성장(인민위원장)을 비롯해 2명의 공단관리 부위원장(투자국장) 등 주요 인사 6명이 한국 내 케이피에프 본사를 방문해 회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향후 베트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플랜트 산업에 케이피에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피에프는 볼트와 너트 등 파스너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꾀하기로 했다.

도성득 케이피에프 대표는 "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케이피에프의 실적을 견인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전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SAMSUNG

1초씩. 되고 싶은 나를 향해.


클래식 프론티어


액티브 실리콘 | 클래식 레더 | 앨리게이터 그레인 레더

*7종 스트랩 별도 구매

Gear S3 frontier | classic